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오행 상담프로그램이
청소년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The logo of Jeju National University is a large, stylized letter 'J' composed of three curved, flame-like shapes in blue, green, and grey. In the center of the 'J' is a smaller logo featuring an open book and the text 'JEJU 1952'. The entire logo is surrounded by a circular watermark containing the text 'JEJU NATIONAL UNIVERSITY 1952' and '제주대학교' in Korean.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김 성 준

2009년 8월

오행 상담프로그램이 청소년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지도교수 김 성 봉

김 성 준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8월

김성준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2009년 8월

<국문 초록>

오행상담프로그램이 청소년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김 성 준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김 성 봉

2004년 학교폭력법이 시행된 이래로 수차례 개정과정을 통해 사람들의 인식은 변화되어왔다. 학교 안 청소년들의 폭력문제를 자라나는 과정의 통과의례정도로 단순화 시켜버린 안일한 생각들로부터 그 심각성을 지각하기 시작한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대인관계에서 비롯되는 청소년의 학교폭력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최근 많은 연구자들이 학교폭력과 같이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담자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시켜 그 효과성을 증명하는 연구들을 발표하고 있다.

본 연구¹⁾에서는 학교폭력과 관련되어 대인관계문제를 호소하는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서양인의 사상과 가치관이 녹아있는 서양이론대신 우리문화와 우리정서가 반영되어있는 오행사상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실행해보자는 시도이다. 또한 상담현장에서 경제성의 원리를 중시한 나머지 개인상담의 필요성이 간과되어져가는 오늘날의 상담현장에 대한 비판적인 대응이기도 하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오행상담프로그램과 이것의 개인상담 형식의 적용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대인관계의 극단적인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청소년들에게 적용하여 대인관계능력 향상 가능성을 실증하려고 한다. 또한 대인관계의 요인과 그 요인들의 변화과정에 대한 고찰을 통해 오행에 근거한 개인상담 프로그램이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대인관계 각 요인에 프로그램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찾으려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대인관계척도(N=40)에 대한 t검증 결과, 이 개인상담 프로그램이 대인

1) 이 논문은 2009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관계증진에 통계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침이 검증되었고, 가해자·피해자 모두에게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대인관계의 각 하위요인을 밝히기 위한 t검증에는 기존의 개인성향이해를 통해 대인관계증진을 꾀한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의 하위요인에서 효과가 있었던 것과는 달리 본 프로그램에서는 유의미한 효과가 발견되지 않은 항목도 있었다.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는 연구자의 관찰 내용과 활동지를 통한 정성적 분석결과를 첨부하여 그 이유를 탐색하였다.

결국 본 연구의 결과는 오행사상에 근거한 개인상담 프로그램이 학교폭력과 관련된 가해자 및 피해자학생들 모두에게 대인관계 면에서 긍정적 변화가능성이 있음을 지지하고 있다. 특히 대인관계하위 척도 중 직접관계를 맺지 않고 이해하고 얹으로서 변할 수 있는 척도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아쉬운 점은 개인의 심층적인 상담을 하기위해서 내담자들에게 소사회를 경험할 수 있는 집단상담을 실시하지 않고 개인상담 형식을 취하였다는 것이 강점과 단점이 되고 있다. 즉, 집단 상담을 통한 소사회경험은 개인상담 형식이기 때문에 놓친 부분이다. 또한 프로그램 대상선정에 있어서 대인관계에 문제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하였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일반 청소년에게 일반화시키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삶의 곳곳에 스며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신쯤으로 여겨지고 있는, 역학에서 분류한 오행의 인간성향 분류를 가지고 내담자들의 인간성향을 이해하는데 사용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역학의 탄생학적인 분류에서 오는 비과학성의 문제를 극복하기위해서 그 부분은 취하지 않았다. 또한 오행에서 분류되는 인간성향을 토대로 개인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그 효과성을 실증하므로써 인간 성향을 이해하는 것이 대인관계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것과 개인 성향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외국의 이론뿐 아니라 고유의 성향분류법이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개인성향을 이해하는데 외국의 이론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오행에 기초한 인간성향이해가 추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오행사상을 근거로 개인성향을 이해함이 대인관계에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을 규명하는 연구들의 밑거름이 되어 오행의 상극과 상생을 바탕으로 인간관계 대처에 있어서 차이를 규명하는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제언을 한다. 먼저, 개인의 성향이해 뿐만 아니라 상생과 상극인 성향에 대한 관계적 측면에서의 관계 맺기 기술에 집중하여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학교폭력에 연루된 대인관계문제를 겪는 청소년들이 아닌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반화 할 수 있는 연구와 구체적인 매뉴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프로그램의 지속성을 확인하기 위한 추후 검사를 하는 것이 필요함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오행체크리스트에 대한 연구를 하여 탄생학적인 방식 때문에 미신으로 평가받는 우리 고유의 오행사상을 과학적 영역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심리검사개발이 필요하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및 가설	3
II. 이론적 배경	5
1. 대인관계	5
2. 오행(五行)	8
3. 오행과 대인관계와의 상관	17
III. 연구방법 및 절차	20
1. 연구대상	20
2. 연구설계	20
3. 연구절차	20
4. 측정도구	23
5. 오행 개인상담프로그램 운영	24
IV. 연구결과 및 해석	28
1. 정량적 분석 결과	28
2. 정성적 분석 결과	32
V. 요약, 결론 및 제언	44
1. 요약	44
2. 결론	46
3. 제언	48
참고문헌	50
Abstract	53
부 록	56

표 목차

<표Ⅱ-1> 윤희(2004)가 나눈 오행의 영향에 따른 인간의 본성	8
<표Ⅱ-2> 정청암(2009)이 나눈 오행의 영향에 따른 인간의 본성	9
<표Ⅱ-3> 상생에 따른 인간관계의 상관	11
<표Ⅱ-4> 상극에 따른 인간관계의 상관	11
<표Ⅱ-5> 의지, 감정, 행동에 초점을 둔 오행에 따른 인간성향	13
<표Ⅲ-1> 대인관계 검사도구의 하위 요인 및 문항	23
<표Ⅲ-2> 오행 개인상담 프로그램 회기 안	24
<표Ⅳ-1> 가해자대인관계의 사전검사 비교	28
<표Ⅳ-2> 피해자대인관계의 사전검사 비교	29
<표Ⅳ-3> 총점평균 실험·통제집단 사후 비교	29
<표Ⅳ-4> 가해자의 실험·통제집단 하위척도 간 사후 비교	30
<표Ⅳ-5> 총점평균 실험·통제집단 사후 비교	30
<표Ⅳ-6> 피해자의 실험·통제집단 하위척도 간 사후 비교	31
<표Ⅴ-1> 실험집단의 유의미한 차이확인	45

그림 목차

[그림 II-1] 오행의 상생과 상극 표	10
[그림 IV-1] 1회기 [학교폭력이란?] 활동지의 예	33
[그림 IV-2] 2회기 오행체크리스트의 활동 예	34
[그림 IV-3] 3회기 인정받고 싶은 목의 활동지 예	37
[그림 IV-4] 4회기 인정받고 싶은 화의 활동지 예	37
[그림 IV-5] 5회기 인정받고 싶은 토의 활동지 예	38
[그림 IV-6] 6회기 인정받고 싶은 금의 활동지 예	38
[그림 IV-7] 7회기 인정받고 싶은 수의 활동지 예	39
[그림 IV-8] 8회기 오행의 상생 활동지의 예	41
[그림 IV-9] 9회기 오행의 상극 활동지의 예	41
[그림 IV-10] 10회기 [마음으로 쓰는 사과편지]활동지의 예	43
[그림 IV-11] 10회기 [나의 다짐]활동지의 예	43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내담자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호소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상담자를 찾아온다. 내담자의 문제는 각각 다르지만 그 본질은 결국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대인관계에서 비롯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상담의 목표란 사람과 사람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고 원만한 관계로 만드는 것-대인관계증진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기존의 논문을 확인한 바, 실제 상담관련 연구자들이 개인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대인관계능력과 이와 관련된 하위영역에 대한 탐구를 통해서 대인관계를 종속변인으로써의 내담자들의 변화를 탐구한 연구들(김명권, 1997; 김장이, 1999; 이수련, 1999; 김명화, 2005; 이상진, 2007; 조영란, 2006)을 확인하였다. 즉, 친밀하고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할 때 개인은 삶에 대한 만족감이 향상되고 이해능력이 증진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와 고독감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 반면, 대인관계형성에 어려움이 있을 때 소외감과 고독감, 스트레스나 고립감을 느끼게 된다(주은연, 2008).

위의 사실의 직접적인 관계를 파악하고자 문선모(1980)의 대인관계척도 일곱 가지 하위영역을 확인하여 대인관계특성을 확인한 바, 신뢰감, 민감성, 의사소통, 만족도, 이해성, 개방성, 친근감의 높고 낮음의 차이가 사람에게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를 느끼게 하는데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김은정, 권정혜, 1998; 최상진, 이장주, 1999; 김기범, 김미희, 최상진, 2002; 장정주, 김정모, 2008). 즉, 대인관계의 하위요인이 높을 때 개인은 대인관계에서 성공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 대인관계의 하위요인이 낮을 때엔 우울증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김은정, 권정혜, 1998) 등의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때문에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의 대인관계증진을 꾀하는 것은 내담자의 건강한 삶의 안위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부합하는 것으로 그 가치가 크다.

대인관계는 Heider(1964)가 “개인이 타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떻게 느끼는가, 그는 타인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으며 타인에 대해 어떠한 행위를 하는가”하는 것(정준교, 1997, 재인용)이라 밝힌바 있듯이 개인의 지각에 근거하여 형성이 된다. 다만, 지각의 형성과정을 통해 두 가지 대표이론으로 나뉠 수 있는데 하나는 초기의 대인관계형성을 중시한 대상관계이론(object-relation theory)이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대인관계기술 습득이나 이해를 중시한 Sullivan(1953)의 대인관계이론이다. 그러나 이 두 이론 모두 대인관계 형성의 결정적 시기적인 면에서 차이가 보고 되지만 결국 대인관계가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부분에서는 그 뜻을 같이하고 있다.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김명권, 1997; 김장이, 1999; 이수련, 1999; 김명화, 2005; 이상진, 2007; 조영란, 2006)이 상담현장에서 내담자에게 기존과는 다른 경험과 이해를 바탕으로 긍정적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인관계증진 프로그램들을 적용해왔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대인관계증진 상담프로그램을 설계하기 위해 기존의 상담프로그램들을 살펴보던 중 기존프로그램의 한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다. 기존의 프로그램들이 주로 외국의 이론들을 번안하거나, 서구인의 특성에 입각하여 서구에서 개발된 이론과 용어, 척도들을 가감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서구의 잣대로 한국인을 바라보게 하고 그러한 연구의 누적은 한국인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는 필연적으로 괴리가 생길 수 있다(조윤경, 2003, 재인용)고 하였다. 서양의 이론을 그대로 차용하여 우리에게 접목하는 것은 많은 문화적 차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양의 이론을 그대로 차용하여 우리에게 접목하는 것은 국악을 ‘궁상각치우’ 5음계가 아닌 ‘도레미파솔라시’ 7음계로 해석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상담에 있어서도 서양식 잣대가 아닌 우리 정서와 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잣대를 찾아내야 할 것이다.

융의 집단무의식은 모든 개인들의 정신은 공통의 하부구조 혹은 토대를 가지고 있다(Bennet 저, 2005, 김형섭 역)는 개념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집단무의식, 사고체계의 기저에 깔려있는 것을 연구자는 유교와 도교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의 성향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했던 일부 상담은 동양인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서양의 잣대로 재단하는 과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기도 하였

다.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전통사상 중 오행이론이라는 잣대를 사용하여 내담자의 성향을 변별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경험해보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다.

이는 기존의 상담현장에서 사용되어지는 주 이론에서 벗어나 우리 정서에 익숙한 오행을 가지고 상담프로그램을 만들고 사용해보자는 시도이다. 또한 상담의 경제성을 강조하는 바람에 상담서비스의 질보다 실적위주로 돌아가는 상담현장에서 심층적 분석이 가능한 개인상담프로그램의 개발이 적어 문제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개인상담 프로그램을 즉각적으로 실시하기보다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재분석하고 구성해서 활용해야만 하는 현실에 대한 하나의 비판적 대응이기도 하다.

2.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은 동양사상인 오행을 통하여 개인과 타인의 성향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타인에 대한 친근감과 신뢰감을 함양시키고 타인에 대한 민감성을 증진시켜 개방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내담자 스스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오행상담프로그램을 설계 및 실시하고 대인관계로써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가해자실험집단과 가해자통제집단은 대인관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가해자들의 대인관계의 변화를 통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대인관계의 증진은 학교폭력과 관련된 상담에서 대표적인 상담목표의 하나이다. 또한 원만한 교우관계로의 변화가 학교폭력을 재발방지 및 해결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실천이유로 보이기 때문이다.

둘째, 피해자실험집단과 피해자통제집단은 대인관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피해자들의 대인관계의 변화를 통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차이를 검증하

기위한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Seligman 실험의 개들처럼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 대부분은 고통을 참으며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Chance, 2004, 김문수 역)라는 사실에서 보고 되었듯이 만성화된 피해자 학생들은 학습된 무기력으로 학교 폭력을 당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그 상황에 적응해버려 추가 피해를 재생산한다. 그러므로 피해자들은 오행상담프로그램을 통하여 개인성향과 타인성향에 바른 이해와 관계법의 숙지하도록 하여 자신이 피해를 자각하고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기름으로서 대인관계 증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대인관계 하위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가해자와 피해자 각각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통해 대인관계하위변화 차이를 검증하기위한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많은 연구자들(이수련, 1999; 김성남, 2003; 김명숙, 2008)이 문선모(1980)가 불안한 대인관계의 일곱 가지 척도를 이용하여 대인관계의 변화양상을 증명하고 있으며 대인관계의 하위척도 일곱 가지의 변화가 대인관계의 증진을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검사로 보고 있다. 또한 김인규(1996)는 가해아동과 피해아동의 차이를 밝힘으로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은 범주에서 보지 않고 나누어서 확인해야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 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사후검사 총점에서 가해자 실험집단이 가해자 통제집단보다 높을 것이다.

가설2. 사후검사 하위영역에서 가해자 실험집단이 가해자 통제집단보다 높을 것이다.

가설3. 사후검사 총점에서 피해자 실험집단이 피해자 통제집단보다 높을 것이다.

가설4. 사후검사 하위영역에서 피해자 실험집단이 피해자 통제집단보다 높을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대인관계

1) 대인관계의 개념과 성격이론

대인관계는 사람과 사람사이에서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사회적인 성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대인관계의 성숙은 삶을 영위하는데 장애가 되는 문제들을 감소시키고 세상과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원동력이 된다. 즉, ‘대인관계(Interpersonal Relations)’란 사람을 대하는 개개인의 보편적인 심리지향성이라는 측면에서 소수인, 특히 두 사람 사이의 1대1 관계를 의미한다(정준교, 1997).

성격이론에서 보는 대인관계이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초기의 형성된 대인관계방식이 이후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대인관계의 기술을 습득해나가는 것에 따른 차이가 인간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먼저, 초기의 대인관계형성을 중시한 이론으로 정신역동치료의 하나인 대상관계이론(object-relation theory)을 보면, 내담자가 과거에 중요한 타인과 어떻게 교류했으며, 그 초기경험을 현재의 관계에 어떻게 반복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일으키는 데 집중된다(안창일, 2008). 인간의 경우 각인현상이 회색기러기만큼의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지만 모자관계가 그 후의 삶에서 대인관계에 다양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 밝혀졌듯이 초기의 대인관계가 우리에게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간과할 순 없다. 또한 미국의 대상관계 치료자인 Kohut에 의하면 "우리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은 냉담, 비인간적인 무관심, 공감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대인세계에 노출되는 것에 있다"고 하면서, 인간의 심리적문제의 근원을 어린 시절 한 개인이 부모와 의미 있고 공감적인 관계를 경험하지 못한 것에 기인된다고 본다(안창일, 2008).

다음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대인관계기술 습득이나 이해가 적절하지 못한 이유로 대인관계에 문제를 보인다는 이론은 Sullivan(1953)의 대인관계이론에서 확인할 수 있다. Sullivan(1953)에 의하면, 인간은 대인 관계적 애착과 대인관계 내에서 자기가치의 유지라는 핵심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인간의 성격은 대인간 교류와 상호작용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비교적 지속적인 유형이고 각 개인의 자기체계에는 중요한 타인들의 평가가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대인관계적이다(Leszcz, 1992). 그는 Freud와 달리 성격이 생의 초기에 결정되는 것으로 보지 않았으며, 인간은 탄력성이 크기 때문에 어느 때건 새로운 대인관계 상황이 전개 되면 성격도 변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권대도, 1988). 실제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듯이 청소년들에게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 있는 타인(significant others)을 말하라고 하면, 청소년들이 언급하는 사람들의 50%는 친구들이 차지한다(장휘숙, 2004). 이는 사람이 과거의 대인관계에 얽매어 있기보단 새로운 중요한 의미 있는 타인들을 찾아가며 이에 맞게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Sullivan은 유전과 성숙이 성격발달의 기초를 제공하긴 하지만 그 후에 지속적인 대인 관계적 환경과 영향이 성격을 형성한다고 하였다.

정리하면 앞서 본 대상관계이론에서는 초기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과거사건에 얽매어있는 것이 아니라 치료과정에서 통찰을 통하여 과거의 사건을 재 경험하여 훈습하도록 조력한다. 또한 Sullivan의 대인관계이론은 초기 이후의 단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상호교류와 패턴을 밝히기 위해 통찰하거나 분석하여 자신의 대인관계패턴을 파악하고, 대인관계 상황에서 정확한 지각을 갖는 것과, 사회적 지각에 따라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과 행동을 결정하는 것, 마지막으로 선택한 최선의 대안을 언어적·비언어적 행동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을 익혀(안창일, 2008) 대인관계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한다. 즉, 대상관계이론과 대인관계이론 모두 과거의 영향보다도 과거의 사건이나 영향으로 잘못 습득된 습관을 비롯한 대인관계기술을 현재 상황에 맞추어 적절한 대인관계기술을 얻도록 조력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과거의 잘못된 사건이나 인식으로 비롯된 잘못된 성향이해를 오행사상을 이해시켜 바로잡고 긍정적인 대인관계의 변화를 도모하였다.

2) 기존의 성향이해 프로그램과 대인관계와의 관련성

대인간 관계를 이해하기 전에 자신과 타인의 성향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사람과 사람의 복잡한 감정들을 온전히 이해하기 힘들다. 때문에 전종국(1997)은 상담에 참여한 개인들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보다 오히려 갈등과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생겨나는데 그 이유를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프로그램의 실시 때문이라 꼬집어 설명한바 있다. 즉, 대인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성향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고 자신과 다른 타인의 성향적인 부분에 대해 알아야한다. 각각의 성격마다의 차이를 깨달은 후에 비로소 성격과 성격이 연결되는 연결고리를 파악을 도모하는 대인관계증진 프로그램의 효과가 발휘되기 때문이다.

성향이해를 통한 대인관계의 관련성을 파악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MBTI를 통해 대인관계개선에 대한 지각이 72%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김명권, 심혜숙, 1997)고 보고하고 있고 비행청소년들의 자기이해와 타인이해, 자신에 대한 긍정적 시각의 변화, 대인관계의 향상에 효과적임을 밝혔다(이수련, 1999). 또한 MBTI성격이해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중·고등부 주일학교 교사 집단이 대인관계 및 집단응집력에 긍정적 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김장이, 1999)하였으며, MBTI 자기성장프로그램을 통하여 간호대학생이 자기 자신의 기준에서 타인의 성격을 변화시키려는 욕구에서 벗어나 타인의 갖고 있는 고유한 성격을 이해하고 존중함으로써 대인관계가 향상되었음(김명화, 2005)을 진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5요인 성격특성이해에 따라 대인관계성향과 학교적응이 달라짐(조영란, 2006)을 보고하였고, 에니어그램 집단상담이 대학생들에게 본인의 성격유형을 탐색케 함으로써 스스로를 파악하고 이로 인하여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여 대인관계에 긍정적 효과를 미침(이상진, 2007)을 밝혔다.

이와 같이 성향이해를 도모하는 프로그램이 자기성찰, 자기이해를 통해 내적성장을 이루게끔 하고 타인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오행사상에서 파악할 수 있는 우리 고유의 성향에 관한 연구는 외국의 성향분류를 검증한 연구에 비하여 그 수가 적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오행상담을 실시하여 이를 경험한 청소년들로 하여금 대인관계에서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오행(五行)

1) 오행의 정의

오행은 중국 고대에서부터 전수되어온 소박하고도 단순한 물질개념이었다. 단순히 밤과 낮을 나누고 음양의 개념을 완성하였고, 우리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물질들을 구분하여 다섯 가지의 오행을 완성하였다. 이러한 개념이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동양의 각 나라로 전수되어왔고 오행의 기본 틀을 전제로 각 나라마다 나름의 오행이론을 정립해왔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사용되어지는 오행도 각 학자마다의 조금씩 차이가 있다. 정국용(2006)은 ‘우주가 생성되기 이전의 한 통일체. 즉 태극(무극)에서 음과 양이라는 두 가지 기운으로 갈라지게 되었고, 음양은 다시 각각 분합작용을 일으킴으로써 다섯 개의 새로운 성질이 발생되는데 이것이 木, 火, 土, 金, 水의 오행이다’라고 하였고 강진원(2003)은 오행에서 五를 만물의 이치를 밝히는 수라고 하였고, 行을 하늘과 땅 사이에 널리 퍼져서 분리, 결합하거나 멈추고 움직이는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만물을 만들어낸다고 하였다.

또한 윤희(2004)는 오행에 따라 사람의 본성을 구분하였는데 그 구분은 다음의 <표Ⅱ-1>와 같고, 정청암(2009)가 밝힌 오행의 성격적 특성은 <표Ⅱ-2>와 같다.

<표Ⅱ-1> 윤희(2004)가 나눈 오행의 영향에 따른 인간의 본성

기운 별 사람	기운별 본성
목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드럽고 따뜻하다. -온화하고 인자하며 다정하다. -희망적이고 문학적이다. -교육적이며 행정적이다. -교육자, 행정가, 문인, 미술가등이 많다
화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밝고 화려하고 정열적이다. -환상적이며 예술적이다. -육감이 예민하다. -예술가, 체육인, 언론인이 많다.

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명령적이고 위엄이 있다. -하나밖에 모르고 일편단심이다. -확실하고 철저하고 정확하며 틀림없다. -농업, 요식업, 생산직 직업이 많다.
금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실하고 정리한다. -모범을 보이며 지도력이 있다. -다스리기를 좋아한다. -자존심과 승부욕이 강하며 의리와 지조가 있다. -군인, 경찰, 법관, 정치가, 지도자가 많다.
수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고 견디며 저장한다. -지혜가 있고 도발적이며 새로운 의견을 제시한다. -연구하고 개발한다. -내성적이며 양보한다. -과학자, 수학자, 음악가, 연구자들이 많다.

<표Ⅱ-2> 정청암(2009)이 나눈 오행의 영향에 따른 인간의 본성

기운 별 사람	기운별 성격
목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높은 도덕률을 지니며 자기 확신이 강하다. -사물의 본래가치를 잘 알고 관심이 넓고 다양하다. -타인을 설득해서 자기와 힘을 합해 같이 일하도록 한다. -끊임없이 진보와 부활을 추구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사업의 범위를 넓히고 가능한 많은 분야로 손을 뻗는다.
화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탁월한 지도력이 있다. -결단성이 있고 자기 일에 확신을 가진다. -공격적이고 긍정적이기에 타인을 움직이게 하고 자신의 생각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한다. -본의에 비해 지나치게 솔직하다.
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능적이고 현실적인 포부를 가졌으며 뛰어난 추리를 지녔다. -자신들의 에너지를 소모할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길을 선호한다. -자신들이 접하게 되는 것이면 효과적인 이용방법을 발견해 내어 재정적인 면에서 현명하고 신중하게 처신한다.
금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엄격하고 단호하며 강한 감정지배를 받는다. -자신의 목표를 집중적으로 추구하고 주저하지 않는다. -야망 있고 원하는 바를 얻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성공 지향적이다. -고집이 세고 융통성이 없다.
수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의 생각에 영향을 주어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키는 재주가 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자신의 그릇처럼 이용하여 자신의 창조적인 사고를 옮기는데 활용한다.

이처럼 오행에 따라 사람을 성격을 나누는 것에 있어서 학자마다 공통된 견해와 상이함이 공존하는 이유는 오행사상의 정립부터 발전해온 과정이 매우 애매하고 또한 구전으로 전해진 기록들로 정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물에 빗대어 유추할 수 있는 현상을 토대로 각 학자들마다의 주관적인 해석을 통해서 구전되어 온 오행사상은 각 시대와 지역에 따라 변화하고 발전되어 왔다. 때문에 이 오행상담프로그램에서는 본 연구자가 앞서 오행에 관하여 언급한 학자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재해석하고 이해한 후 재정립하여 사용하였다.

2) 오행의 상극과 상생

오행은 순환론적인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상생(相生)과 상극(相剋)이 다섯 가지의 기본성향에서 순환되기 때문이다. 상생의 기본원리를 정국용(2006)은 ‘오행의 운동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효과가 서로 성장 발전하는 방향으로 돕는 우호적 관계로써 상생의 순서는 木은 火를 발생시키고 육성하며 火는 土를, 土는 金을, 金은 水를, 그리고 水는 木을 발생시키고 육성한다.’하였고, 정재운(2005)은 상극을 상생의 힘으로 잘 자란 나무를 도끼로 쳐내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따른 순환의 원리는 아래[그림Ⅱ-1]과 같다.



[그림Ⅱ-1] 오행의 상생과 상극 표

이러한 상생과 상극의 흐름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재 정의하여 인간관계의 상관계를 밝히면 다음의 <표Ⅱ-3>와 같다.

<표Ⅱ-3> 상생에 따른 인간관계의 상관

상생	인간관계의 상관
木生火	도전하고 창조적임(木)은 열정(火)에 좋은 자극제가 된다.
火生土	열정적임(火)은 신중하고 망설(土)에서 시도의 결과를 창출한다.
土生金	신중함(土)의 행동은 절제하고 관습에 따라야함(金)에 좋은 본보기가 된다.
金生水	관습(金)은 처세술(水)에서 조직의 규칙을 망각하지 않도록 한다.
水生木	융통성(水)은 창조적임(木)에 새로운 사고의 길을 열어준다.

이처럼 상생의 흐름을 설명할 때 한 가지 기운이 그 기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운을 끌어올 수 있는 기폭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 가령, 창조력이 있는 木의 성향은 자신의 특성에 따라 다방면에 관심들을 보이는 데, 이러한 에너지가 火의 성향에게 전달되었을 때 열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자극제가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상극에 따른 대인관계 흐름을 밝히면 <표Ⅱ-4>과 같다.

<표Ⅱ-4> 상극에 따른 인간관계의 상관

상극	인간관계의 상관
木剋土	새로운 관계의 관심(木)은 깊은 사귄(土)을 방해한다.
火剋金	개혁하고자하는 의지(火)는 조직중심의 사고(金)와 마찰을 빚는다.
土剋水	신중함이 묻어나는 長考(土)는 적절한 시기의 처세술(水)을 방해한다.
金剋木	관습적이고 안정적인(金)은 도전과 창조의 시도(木)를 받아들이기 힘들다.
水剋火	융통성 있음(水)은 시비의 개혁(火)과 마찰을 빚는다.

오행상극은 대립이 된 상태의 두 행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원리와 현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즉, 상생과 상극에서 생을 해주거나 생을 받는 것도 과다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며, 극을 하거나 극을 받는 것 또한 과다하면 불화가 생기는 것이고, 같은 것끼리 너무 많이 뭉쳐도 역시 서로 쟁탈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가장 좋은 것은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중용인 것이다(신용대, 2007). Duran(2004)은 중용이 수학의 중수처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두 외항의 평균이 아니라 원숙하고 유연한 이성애 의해서만 발견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중용이 필요한 이유

는 Descartes가 의식은 궁극적으로 명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계와 우리를 융합하고 또 엮어주던 밧줄을 절단해 각자의 영혼을 사적 영역으로 환원시켜버려서 의식이란 고유한 사적영역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스스로 감금하는 하나의 유페이다(Ortega Y Gasset 저, 정동희 역, 2006)라고 지적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인간의 정신세계가 주관적인 틀 속에 갇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두 개인이 겪는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두개의 견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즉, 대인관계에서 어떠한 중재적 기술이 없다면 둘은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갖고 마찰을 빚을 것이다. 이에 오행의 상극과 상생의 원리를 통하여 익히는 중용은 상호작용하는 것과 이질적인 것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준다. 즉, 본 프로그램에서는 오행과 상생과 상극의 이해를 바탕으로 중용에 대한 재조명을 통해 궁극적으로 개인은 타인과 자신에 대한 이해성을 높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음을 통해 민감성을 갖추게 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결과 개인은 자기를 개방하게하고, 신뢰감과 친근감을 쌓게 되어 궁극적으로 만족감에 이르도록 되는 것이다.

3) 오행상담프로그램에서의 성향별 인간성격

오행 상담프로그램에 적용되는 오행의 성격구분에는 REBT이론의 개념인 ‘합리’, ‘감정’, ‘행동’에 합리와 동일한 철학적인 개념인 ‘의지’ 참고하여 인간성향을 구분하여 파악하였고 내담자들에게 적용하였다.

Ellis의 합리적 정서행동이론에서는 문제행동을 유발하고 유지시키는 것은 문제 행동을 유발하는 사건보다 그에 대한 내담자의 신념이나 생각이라고 생각한다 (Spiegler 저, 2005, 진윤식 역). 즉, 사람은 행동되어지고, 그 행동은 사고에서 비롯되고, 그것은 개인은 합리(이성)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는 스피노자가 모든 신체의 활동은 객관화된 의지의 작용에 지나지 않는다(Durant 저, 임현영 역, 2004)라고 한 것을 통해서 행동과 의지와 의 상관관계를 유추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오행의 따른 인간성향을 의지, 감정, 행동으로 구분하여 재해석한 오행의 성향적 특성은 <표II-5>와 같다.

<표Ⅱ-5> 의지, 감정, 행동에 초점을 둔 오행에 따른 인간성향

기운	의지	감정 및 사고	행동
木형	인정 받고 싶다.	과시욕구가 있다.	-자신의 어려운 점을 밝히지 않는다. -특별한 존재이고 싶어 한다. -실패를 두려워하여 어려운 과제를 선택한다. -삶의 가치를 유능함에 맞춘다. -충고를 공격받았다고 여겨 방어적이 된다.
		정체하는 건 후퇴하는 것이다.	-실패에서 회복이 빠르다. -현실에 만족하지 못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 -일을 빠르게 추진한다.
		낙천적이다.	-실패 경험을 빨리 지운다. -실패에서 빨리 회복한다. -과거에 대한 반정보단 희망을 꿈꾼다. -많은 것에 관심을 갖는다. -새로운 것에 호기심이 많다. -한 가지 일에 몰두하지 못한다. -일의 마무리가 약하다.
火형	강해 지고 싶다.	의리와 도리를 중시한다.	-오지랖이 넓다. -내편과 내편이 아닌 사람의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행동한다. -내편이라 느낄 때 책임감을 느끼고 설령 잘못된 일이라도 보호하려 한다. -내편이 아닐 경우 우호적이지 않다.
		힘을 행사하고 싶다.	-타인 때문에 희생을 하기도하고 손해를 보기도 한다. -허세를 부린다. -자신의 욕구를 그대로 보여준다. -욕구를 위해 싸우는 것을 피하지 않는다.
		이해하고 싶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 분노를 느낀다. -이해가 되지 않을 경우 신랄하게 비난한다.
土형	진실 을 알고 싶다.	가능성 보다 현재 기능에 관심이 있다.	-정보를 수집하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한다. -분석력과 통찰력이 뛰어나다.
		감정 보다 이성을 중시한다.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만으로 상황을 이해하려 한다. -사교적이지 못하고 관계에 있어서 방어적인 입장을 취한다.

		의심, 내가 확인해야 한다.	-자신이 옳다고 믿으면 일편단심이고 타인의 의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타인의 충고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타이밍을 놓친 후 후회, 아쉬움, 속앓이를 한다. -혼자 생각을 정리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金형	규칙 을 지키 고 싶다.	충실해야 한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전력을 다한다.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헌신적이고 충실하다. -융통성이 없다. -정직하고 믿을 만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안전해야 한다.	-경계심이 지나치다. -강력한 권력자에게 붙어 지시받길 원한다. -의심이 많다. -조직 내 힘을 구조를 빠르게 파악한다. -선택에 있어 자신감이 없다. -기존의 규칙을 파악하기 전까지 자신의 주장을 내비치지 않는다.
		개인보다 조직이 우선되어야 한다.	-독립성을 허용하지 않고 타인을 통제하려 한다. -세상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한다. -확실한 계획과 업무분장의 일을 선호한다. -자신이 만들어놓은 굴레에 자신이 빠진다.
水형	조정 하고 싶다.	융통성이 있다.	-의견충돌이나 대립할 때 그 진가를 발휘하여 상황을 잘 조율하는 능력이 있다. -사전에 계획을 하지 않고 상황에 맞춰 행동한다.
		호감을 주고 싶다.	-이미지 메이킹을 한다. -관심이 없더라도 호감이 있는 듯 행동하여 오해를 산다. -타인의 욕구에 기민하게 반응한다.
		세상을 나의 생각대로 만들고 싶다.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는 듯 하나 결국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지 않는다. -타인의 장점과 단점을 잘 파악한다.

4) 오행 상담프로그램에서 성향별 상생과 상극관계

(1) 인정받고 싶은 木성향

木성향은 에니어그램의 8번 유형과 상응하는 부분이 있다. 8번 유형은 자신을 주장하기 위해 자기에게 협력하지 않으면 적대적이라고 느끼는 환경에 끊임없이

대항하며 남의 밑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하진 않는다(Riso 저, 주혜명 역, 2009). 이를 木剋土, 木生火의 상관관계로 밝힌다면, 규정과 규칙을 중시하는 관습적인 성향인 金성향이 성장하고 지배받지 않으려는 木성향을 통제하는 것으로 설명되어진다. 또한 木의 인정욕구는 궁극적으로 강함을 추구하는 火성향으로 이어지는 관계에 있다.

(2) 강해지고 싶은 火성향

대부분의 火성향의 사람들은 타인을 인식할 때 내편과 적으로 구분되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갖는다. 때문에 火성향의 사람들은 자기편이라 생각될 때에는 손해를 감수하기도 하지만, 적이라 인식되어진 사람에게 대해서는 투사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관계에서 정확한 판단을 하긴 쉽지 않다. 때문에 火성향의 사람들은 이분법적인 구분이 모호할 때 쉽사리 행동을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火生土와 火剋金의 상관관계로 보면, 내편과 적의 구분이 확실한 火의 성향은 진실을 밝히고자하는 土의 성향에게 힘을 실어준다. 반면, 火성향의 내편에 대한 목인이 金성향의 규칙을 무너뜨리는데 일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진실을 알고 싶은 土성향

土성향의 사람들의 주 특징은 결정이나 언행을 할 때 신중하게 처신을 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에니어그램 5번 유형의 사람들의 특징인 사회적 접촉을 피하고 다른 사람들과 친해지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고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쉽게 지쳐 버리는(Riso, 주혜명 역, 2009) 성향과도 공통된 점이 있다. 이러한 행동패턴이 발생하는 이유는 土성향이 감정보다 이성에 지배를 받고 현재사실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 성향의 사람들은 흔히들 ‘長考를 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결정과 선택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향을 土生金과 土剋水의 상관을 통해 밝힌다면, 이성적인 판단이 규정과 규칙의 金의 성향에 힘을 실어주고, 長考의 특징인 土성향이 융통성과 기민성의 水의 성향을 방해함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4) 규칙과 규정을 지키고 싶은 金성향

대부분의 金성향의 사람들은 규칙과 규정을 잘 지킨다. 이는 金성향의 사람들이 충실하고 안전함을 원하는 기본성향에서 비롯된 것이다. 때문에 金성향의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옳다고 믿으며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자신과 조직을 동일시하여 자신으로 평가받기보다 조직의 한 구성원으로 평가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金성향의 사람들을 평가할 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하지만, 강직한 성품으로 자신이 지키는 규칙이 깨지는 것을 보기 힘들어하기 때문에 타인에게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규칙이나 규정을 강요하여 어려운 사람으로 평가 받는다.

金성향은 Holland이론에서 관습형(C)과 관련이 깊다. 관습형이 金성향과 같이 관습적인 가치를 따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통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자신들이 추구하는 일들은 도전해 볼만한 가치가 있고 도움이 되며 의욕적인 일이라고 믿는 반면, 상상력을 요하는 일만큼이나 예술적인 활동은 그다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박건예, 2000). 이는 金성향과 상극관계인 金剋木의 관계에서 보면 木의 창의적이고 의욕적인 일을 벌이는 반면 金이 관습과 규정에 얽매어서 木의 성향을 저지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金生水로써 규정과 규칙이 몸에 배인 사람만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조율과 융통성을 부림에 있어서 방종이 융통성의 껍을 부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5) 조정하고 싶은 水성향

대개 水성향의 사람들은 어느 환경에서나 잘 적응한다. 물은 호리병에 담으면 호리병의 모양이 되고 장독대에 담으면 장독대의 모양이 된다. 이처럼 물은 어디에나 잘 어울리고 융통성 있는 사람으로 평가되어진다. 때문에, 하지만 물과 기름이 섞을 수 없는 것처럼 본연의 성질을 버릴 순 없다. 즉, 타인의 말을 경청하고 맞춰주는 듯 보이지만, 결국 자신이 뜻한바 대로 상황을 이끌고 나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의 水성향의 주된 특징이다.

水의 성향과 에니어그램 9번유형의 사람들과 비슷한 점으로 사람들을 화합하게 하고 갈등을 치유할 수도 있고, 수동적이고 고집스러워질 수도 있다(Riso, 2009, 주혜명 역). 이는 水生木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갈등을 해결하기위한 새로운 것

사고나 가치를 창출해냄을 통해서 파악가능하고 水剋火의 관계를 통해서 융통성을 부리다간 火처럼 끌어오는 정열적인 투쟁을 중화시켜 버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오행의 기본성향속지는 대인관계에서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다. 사회적 관계모형에서는 보고되듯이 타인을 지각하는 것은 지각자 효과와 지각대상자 효과, 그리고 두 대상의 간 관계효과에서 비롯된다. 지각자 효과는 특정 지각자가 다수의 지각대상자를 비슷하게 지각하는 정도이고, 지각대상자 효과는 서로 다른 지각자 A와 B가 지각대상자들을 평가할 때 지각대상자의 특성을 공통적으로 느껴 동일한 지각의 유무의 차이이고, 관계효과는 특정 지각자가 특정 지각대상자만을 특별하게 지각할 때 그 효과가 있다고 한다. 정태연(2000)은 경험적 연구들의 대인지각 측정상의 오류 45%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각각 20%씩의 지각자 효과와 지각대상자 효과, 그리고 15%의 관계효과에 의한 산물임을 보고하였다. 즉, 타인을 지각함에 있어서 친숙함을 느끼는 것과 타인이 친숙하게 느껴지는 것, 그리고 그러한 대상과의 관계에서 친숙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대인관계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조력해준다. 즉, 오행을 통한 인간성향의 이해는 내담자로 하여금 타인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게 하며, 이로써 타인과 친숙한 관계로 발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3. 오행과 대인관계와의 상관

자신의 성향을 알아야만 자신의 정서의 상태를 알 수 있고 대인관계 면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래서 오행을 토대로 한 정서자각은 대인관계에서 중요하다. Salovey와 Mayer(1990)는 정서적으로 유능한 사람은 자신의 정서를 명확히 자각하고 표현한다고 하였으며, 또한 정서자각이 높을수록 덜 우울하고 (Beck & Beck, 1972), 긍정적 정서경험, 외향성, 높은 자존감, 사회적지지에 대한 만족감이 높다고 하였다(장정주, 김정모, 2008, 재인용). 그리고 장정주와 김정모(2008)의 연구를 통해서 대인관계의 하위요인인 이해성과 정서자각과 개방성간에 높은 정적상관이 있음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오행을 통해 자신의 정서 및 성향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이 대인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으며, 오행의 다섯 가지요인과 Schlin과 Guerney가 제시한 대인관계의 하위요인인 만족도, 의사소통, 신뢰감, 친근감, 개방성, 이해성, 민감성을 가지고 그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먼저 신뢰감과 오행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최상진과 이장주(1999)는 ‘무시’는 남에게서 당하는 경우 보다 ‘우리 관계’에서 당하는 경우가 더 중요하게 고려된다고 하였다. 2차정서 가운데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난 ‘배신감’이 친밀한 대인관계에서 느끼는 부정적 감정의 주류가 된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친밀한 대인관계와 배신, 즉 신뢰감과 관련되는 내용이다. 오행에서 金의 성향은 규칙과 규정, 약속을 중시하는 성향이다. 오행을 통해서 자신이 규칙과 규정을 어김으로서 미치게 되는 영향을 파악할 때 상대에게 배신감이라는 부정적 정서를 주지 않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다음으로 친밀성과 의사소통영역에서 살펴보면, 우울한 사람들의 대인관계상 특징은 사회적 네트워크부족, 사회적 지지의 부족, 부족한 사회적 기술, 그리고 대인관계 내에서 특징적인 행동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정, 권정애, 1998). 이러한 우울한 사람들은 무기력한 행동습관을 가지고 자기 삶에 대한 만족이 없다. 즉, 사회적 지지를 통해 알 수 있는 친밀성과 부족한 사회적 기술인 의사소통의 결여는 대인관계의 실패와 연결이 됨을 알 수 있다. 어윤희(2001)은 火의 성향이 젊음에 비유하며 채워지지 않은 순수한 공간이 있다고 하였다. 의사소통의 결여에서 오는 소통의 단절과 이로 인한 대상으로부터의 괴리감이 만들어내는 외로움은 순수하게 자신의 외로움을 인정하지 못하고 土의 성향과 같이 밖으로 표출하지 못하고 내면에 쌓아두기 때문이다. 즉,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거나 의사소통을 하는데 있어서 망설이는 행동 등은 자신의 욕구를 자유롭게 표출하는 火성향이 막혀있고 土성향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오행의 상생이론을 통하여 대인관계와의 하위요인을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 木의 도전하는 마음은 관계창출의 욕구로 승화되고 이러한 욕구는 火에게 있어서 열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원동력이 된다. 火의 주 성향이 열정이듯이 자신의 열정적으로 내보이는 것은 개방성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자기노출은

대인관계에서 필수적인 요건인데 이러한 성향을 보임으로써 비로소 土의 신중함으로 진입할 수 있다. 土의 신중함이란 관계의 깊이를 말하는데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알아 가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만 한다. 만약 이러한 일종의 물을 깬다면 서로에게 불편하거나 부담스러운 사람으로 남을 수도 있다. 이러한 물을 정해주는 것이 金의 성향이다. 金은 규칙을 준수하는 것을 희망하며 관습적인 성격이듯이 시간을 충분히 주고 그 대상을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칙이 잘 이행되었을 때 水의 성향처럼 서로에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민감성이 생기는 것이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이 연구문제를 살펴보기 위하여 인천 N교육청 WEE센터에 의뢰 및 자발적으로 상담을 신청한 학교폭력 가해자 및 피해자 각각 20명씩, 총 40명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누어 연구대상을 설정하였다.

2. 연구 설계

본 연구의 실험설계는 실험집단에는 접수면접 시 사전검사를 하고 오행상담프로그램을 실시한 이후 사후검사를 실시하는 것이고, 통제집단에는 접수면접 시 사전검사를 한 이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1~2주 이후 상담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사후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3. 연구 절차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인천광역시의 N교육청 관할의 중학생 남녀학생들 중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자로서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의뢰된 학생들을 선정하였다.

대상을 학교폭력과 관련된 학생들로 선정한 이유는 문용린(2009)이 청소년폭력 예방재단을 통해 발표한 『2008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2006년에

서 2008년의 차이를 확인하였는데 2006년과 2007년에는 1회 이상의 학교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비율을 각각 17.3%에서 21.8%, 12.8%에서 18.7%로 학교폭력이 상승하고 있다가 2008년에는 각각 13.5%, 12.0%로 낮아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하락추세의 원인을 학교폭력 전문 시민단체와 정부의 관련부처의 노고덕분이라고 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이제 막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학교폭력의 예방에 신중을 기하는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하고자 실험대상을 학교폭력과 관련된 가해자 및 피해자 청소년집단을 선정하여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교육청으로 의뢰되거나 자발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내담자중 다음의 조건에 충족되는 학생을 선발하였다. 먼저, 학교폭력 중에서도 신체적 폭력 및 관계적 폭력의 가해자 및 피해자로서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학생을 선발하였다. 두 번째 조건으로는 징계의 사유로든 혹은 자발적으로든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석이 가능여부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학생을 학교의 동의를 받아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위기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이 병행되어진 연구이다. 때문에 빠른 개입을 통한 치료를 적용해야하는 과정 중에 있었다. 때문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구분에 있어서 내담자의 각 성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분류를 하기보다는 학생들의 학교폭력이라는 범주 안에서 선착순으로 상담을 진행하여 빠른 상담서비스를 받도록 하는데 주력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통제집단은 부득이하게 상담을 진행할 수 없어서 공백 기간이 생기는 내담자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사전검사 실시

오행사상에 기초한 개인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대인관계척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실험집단은 접수면접이후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검사를 실시하였고, 통제집단은 상담서비스를 받기 위해 접수면접을 하러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실시 기간은 실험집단의 경우 1월~4월이었고 통제집단은 4월~5월이었다.

3) 오행상담프로그램 실시

본 프로그램의 운영은 본 연구자가 상담자가 되어 오행상담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그 효과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프로그램 진행방식으로 개인상담형식을 취하였는데 그 이유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집단참여가 오히려 그들의 성장에 해가 되거나 비생산적일 수 있는데(Corey 저, 김춘경 역, 2005),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교폭력 가해자 및 피해자들이 집단으로 묶였을 때 또 다른 학교폭력을 재생산하여 2차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상담자의 판단에서였다.

진행과정은 사전검사 후 실험집단에 오행상담프로그램을 1월에서 4월 초까지 각각 10회기씩 실시하였다. 한 회기의 프로그램 진행시간은 50~60분으로 하였다.

4) 사후검사 실시

실험집단은 대인관계증진프로그램을 마치는 날 사전검사와 같은 대인관계척도검사를 실시하였고(1월~4월), 통제집단은 사전검사를 하고 1~2주간의 상담서비스대기를 마치고 온 학생들에게 상담을 시작하기 전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4월~5월).

5) 자료 분석

자료의 분석은 windows spss 12.0프로그램에 의하여 기호화, 전산처리, 통계적 해석 등의 순으로 처리하였다.

본 연구의 프로그램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프로그램 전과 후 대인관계척도검사를 실시하여 t검증을 구하였고, 이 검증을 토대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총점과 하위척도에서의 차이, 그리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내 가해자와 피해자의 유의미한 차이를 $p < .05$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질적 자료의 처리는 본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으로 유의미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중심으로 상담장면에서 활용한 활동지를 수집하고 내담자들의 행동을 관찰하여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분석한 결과의 타당성을 보안하기 위하여 Wee 센터의 임상심리사와 상담사, 사회복지사와 상의하였다.

4. 측정도구

1) 대인관계척도

본 연구에 사용된 대인관계 측정도구는 Schlin과 Guerney의 대인관계 변화척도(Relationship Change Scale)를 이형득과 문선모(1980)가 우리 실정에 맞게 변안한 대인관계검사 하위영역으로 만족도(4), 의사소통(5), 신뢰감(3), 친근감(3), 개방성(4), 이해성(4), 민감성(2)의 7가지 하위영역의 총 25문항을 Likert척도로 되어 있다. 척도는 총 25문항으로 총점의 범위는 25~125점 사이이고 문선모의 신뢰도계수는 Cronbach α 가 .86이다. 하위요인별 문항구성은 <표Ⅲ-1>와 같다.

<표Ⅲ-1> 대인관계 검사도구의 하위 요인 및 문항

하위요인	문항내용	문항번호	문항 수
만족감	자신과 타인에 대한 만족정도, 타인의 타인평가와 타인의 자신평가정도	1,2,3,4	4
의사소통성	대화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와 의견충돌 시 절충할 수 있는 정도	(9),14,18,(19),24	5
신뢰감	타인에 대한 신뢰정도, 타인의 호의나 질타에 대해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정도	15,17,23	3
친근감	타인에 대한 관심 및 친근감을 느끼는 정도와 타인과의 관계에서 원만한 정도	5,11,(16)	3
개방성	관계의 자신감 정도와 긍정적·부정적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정도, 자신의 개방정도	12,20,21,22	4
이해성	자신이 원하는 대인관계정도 및 자신과 타인의 느낌이 해정도	7,8,13,25	4
민감성	타인의 욕구를 민감하게 알아채는 정도	6,10	2

*()는 역산 문항임

5. 오행 개인상담프로그램 운영

1) 오행 개인상담프로그램 회기 안

오행사상에 기초한 개인상담프로그램은 모두 10회기로 ‘학교폭력이란??’, ‘오행 이해’, ‘도전적인 木’, ‘정의로운 火’, ‘신중한 土’, ‘바른 金’, ‘융통성의 水’, ‘오행의 상생’, ‘오행의 상극’, ‘오행을 통해 실생활에 적용하기’로 구성하였다. 학교폭력의 이해는 1회기에서 진행하였으며, 학교폭력의 정의와 종류를 중심으로 법적인 보호 및 처벌에 대해 이해하도록 하였다. 2회부터는 오행사상에 기초한 개인상담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하도록 하였다.

각 매기마다 활동지를 첨부하여 내담자들로 하여금 작성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수행평가가 종래의 객관적이고 양적인 평가의 단점을 극복하고, 학생들 개개인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재구성하고, 자신에게 의미 있는 지식이나 정보를 적극적으로 학습하도록 조장할 수 있다(김성봉, 2004)는 데에서 착안하였다.

개인상담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느끼고 깨닫게 되는 여러 가지 사실 및 감정에 대해서는 마무리시간을 이용하여 감정을 정리하도록 도와주었다. 프로그램은 <표Ⅲ-2>와 같이 진행하였다.

<표Ⅲ-2> 오행개인상담프로그램 회기 안

회기	제목	상담활동 내용
1	학교폭력 이란??	1)도입 ★상담자소개 프로그램참여이유파악 2)상담활동 ★학교폭력의 정의 및 종류이해 ★오행사상에 기초한 개인상담프로그램 소개 ★서약서쓰기 3)마무리 프로그램 중 느낀 감정을 다루기
2	오행 이해	1)도입 ★오행의 유래와 오행의 성향이해

2	오행 이해	<p>2)상담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행 체크리스트 실시 ★자신의 성향파악 ★성향의 보편적인 특성이해 <p>3)마무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느낀 점을 나누기
3	인정받고 싶은 목성향	<p>1)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담오기 전 변화 탐색 ★전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정리 <p>2)상담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 성향의 기본적인 성격과 특성이해 ★목 성향을 성격과 느낌을 파악 ★주위에서 목 성향을 가진 사람파악 ★목성향의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필요한 전략파악 <p>3)마무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 성향에 대한 느낌 나누기 ★목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특성에 대해 파악하는 과제주기
4	강해지고 싶은 화성향	<p>1)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담오기 전 변화 탐색 ★전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정리 및 과제확인 <p>2)상담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 성향의 기본적인 성격과 특성이해 ★화 성향을 성격과 느낌을 파악 ★주위에서 화 성향을 가진 사람파악 ★화 성향의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필요한 전략파악 <p>3)마무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 성향에 대한 느낌 나누기 ★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특성에 대해 파악하는 과제주기
5	진실을 알고 싶은 토성향	<p>1)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담오기 전 변화 탐색 ★전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정리 및 과제확인 <p>2)상담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 성향의 기본적인 성격과 특성이해 ★토 성향을 성격과 느낌을 파악 ★주위에서 토 성향을 가진 사람파악 ★토 성향의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필요한 전략파악

5	진실을 알고 싶은 토성향	<p>3)마무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 성향에 대한 느낌 나누기 ★토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특성에 대해 파악하는 과제주기
6	규칙·규정을 지키고 싶은 금성향	<p>1)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담오기 전 변화 탐색 ★전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정리 및 과제확인 <p>2)상담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 성향의 기본적인 성격과 특성이해 ★금 성향을 성격과 느낌을 파악 ★주위에서 금 성향을 가진 사람파악 ★화 성향의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필요한 전략파악 <p>3)마무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 성향에 대한 느낌 나누기 ★금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특성에 대해 파악하는 과제주기
7	조정하고 싶은 수성향	<p>1)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담오기 전 변화 탐색 ★전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정리 및 과제확인 <p>2)상담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 성향의 기본적인 성격과 특성이해 ★수 성향을 성격과 느낌을 파악 ★주위에서 수 성향을 가진 사람파악 ★수 성향의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필요한 전략파악 <p>3)마무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 성향에 대한 느낌 나누기 ★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특성에 대해 파악하는 과제주기
8	. 오행의 상생	<p>1)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담오기 전 변화 탐색 ★전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정리 및 과제확인 <p>2)상담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성향이 상생의 원리이해 ★순환의 원리에 의해 상생되는 형상을 실생활에 적용 ★상생의 원리에 의한 대인관계파악 <p>3)마무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생의 원리에 대해 나누기 ★상생의 원리에 입각한 자신평가

9	。 오행의 상극	1)도입 ★상담오기 전 변화 탐색 ★오행에서 상극의 순환관계설명 2)상담활동 ★각 성향이 상극의 원리이해 ★순환의 원리에 의해 상극되는 형상을 실생활에 적용 ★상극의 원리에 의한 대인관계파악 3)마무리 ★상극의 원리에 대해 나누기 ★상극의 원리에 입각한 자신평가
10	。 오행을 통해 실생활에 적용하기.	1)도입 ★상담오기 전 변화 탐색 2)상담활동 ★오행 원리에 입각한 이해력 증진 ★자신과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을 이해 ★자신의 성향의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 3)마무리 ★오행 전체 정리하기 ★지금까지 배운 오행의 원리를 실생활에 적용다짐

*부록 참조

2) 오행 체크리스트

본 연구자가 조용헌(2002), 정재운(2005), 어윤희(2001)이 제시하는 오행의 근본 성향을 파악하여 내담자들이 오행의 기본성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만든 30문항의 체크리스트이다. 문항은 총 다섯 가지의 성향을 파악하여 내담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었을 뿐, 이것을 이용하여 내담자들의 성향별로 분류하지는 않았다. 체크리스트는 만들기 전에 목화토금수의 성향 각각 12문항씩 총 60문항을 만든 이후에 상담관련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상담사 3명으로 하여금 내용타당도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그중 관련성이 깊은 6문항씩을 뽑아서 오행 체크리스트를 완성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본 연구의 목적은 오행상담프로그램이 학교폭력과 관련된 가해자 및 피해자 청소년의 대인관계척도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을 병행하였다. 먼저, 정량적 분석은 오행상담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과 실시하지 않는 통제집단의 대인관계척도를 통한 동질성을 검증하였다. 그리고 동질성을 확인한 결과를 토대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사후검사 비교자료를 통하여 그 차이를 검증하였다. 그리고 정성적 분석으로서 정량적 분석결과를 보강하기 위한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상담자의 관찰을 통한 자료와 내담자들이 작성한 활동지를 토대로 그 내용을 분석하여 정량적 분석의 미흡한 점을 보강하였다.

1. 정량적 분석 결과

1) 가해자집단의 동질성과 피해자집단의 동질성 검증

프로그램을 투입하기 전에 가해자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대인관계 점수의 차이와 피해자의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 대인관계 점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t-검증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IV-1>와 <표IV-2>이다.

<표IV-1> 가해자대인관계의 사전검사 비교

하위검사척도	실험(N=10)	통제(N=10)	t	p
	M(SD)	M(SD)		
민감성	5.10(1.10)	5.10(1.96)	.00	1.00
만족도	13.00(2.21)	12.30(2.35)	.68	.50
의사소통	13.80(2.57)	12.60(1.89)	1.18	.25
개방성	13.30(.94)	12.80(1.22)	1.01	.32
이해성	13.40(1.57)	13.10(2.33)	.33	.74
신뢰감	8.90(.73)	9.90(1.66)	1.73	.09
친근감	8.30(2.75)	8.70(1.88)	.37	.70
전체	75.80(5.76)	75.40(4.90)	.16	.86

<표IV-2> 피해자대인관계의 사전검사 비교

하위검사척도	실험(N=10)	통제(N=10)	<i>t</i>	<i>p</i>
	M(<i>SD</i>)	M(<i>SD</i>)		
민감성	7.50(1.58)	8.40(1.17)	1.14	.16
만족도	9.20(1.13)	8.70(2.00)	.68	.50
의사소통	10.80(1.22)	10.40(1.64)	.61	.54
개방성	10.70(1.88)	9.40(1.64)	1.64	.11
이해성	9.60(1.34)	10.50(1.43)	1.44	.16
신뢰감	8.70(1.56)	7.70(.94)	1.72	.10
친근감	7.50(1.08)	7.00(1.05)	1.04	.30
전체	64.00(4.69)	62.00(3.19)	1.11	.28

<표IV-1>과 <표IV-2>에서 보면 가해자의 실험집단의 평균총점은 75.80이고 통제집단의 평균총점은 75.40이다. 또한 피해자의 실험집단의 평균총점은 64.00이고 통제집단의 평균총점은 62.00이다. 또한 유의도 수준 .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므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동질하다.

2) 가설검증 및 해석

(1) 가설 1의 검증 및 해석

가설 1. 사후검사 총점에 있어서, 가해자 실험집단이 가해자 통제집단보다 높을 것이다.

<표IV-3> 총점평균 실험·통제집단 사후 비교

집단 \ 구분	M	<i>SD</i>	<i>t</i>	<i>p</i>
실험	81.80	4.93		
통제	75.90	5.91		

<표IV-3>에서 보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차이는 유의도 수준은 .05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또한 실험집단의 평균총점은 81.80이고 통제집단의 평균총점은 75.90으로 실험집단이 높다. 즉, 가해자실험집단에서 오행 개인상담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으므로 총득점에 긍정적 효과를 미침이 밝혀졌다.

(2) 가설 2의 검증 및 해석

가설2. 사후검사 하위영역에 있어서, 가해자 실험집단이 가해자 통제집단보다 높을 것이다.

<표IV-4> 가해자의 실험·통제집단 하위척도 간 사후 비교

집단	구분	M	SD	t	p
	민감성	실험	6.40		
	통제	4.90	1.79		
만족도	실험	14.40	1.95	1.64	.11
	통제	12.90	2.13		
의사소통	실험	15.20	4.93	2.34	.03
	통제	13.10	5.91		
개방성	실험	14.80	2.14	2.53	.02
	통제	12.60	1.71		
이해성	실험	11.50	1.84	1.84	.08
	통제	13.20	2.25		
신뢰감	실험	9.90	1.19	.60	.55
	통제	10.30	1.70		
친근감	실험	9.60	2.50	.69	.49
	통제	8.90	1.96		

<표IV-4>에서 보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차이가 유의도 수준은 .05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것은 민감성, 의사소통, 개방성이다. 또한 유의도 수준 .05에서 만족도, 이해성, 신뢰감, 친근감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하긴 힘들다.

(3) 가설 3의 검증 및 해석

가설3. 사후검사 총점 수에 있어서, 피해자 실험집단이 피해자 통제집단보다 높을 것이다.

<표IV-5> 총점평균 실험·통제집단 사후 비교

집단	구분	M	SD	t	p
	실험		73.20		
통제		61.80	2.89		

<표IV-5>에서 보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차이는 유의도 수준은 .05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또한 실험집단의 평균총점은 73.20이고 통제집단의 평균총점은 61.80으로 실험집단이 높다. 즉, 피해자실험집단에서 오행 개인상담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으므로 총점에서 긍정적 효과를 미침이 밝혀졌다.

(4) 가설 4의 검증 및 해석

가설4. 사후검사 하위영역에 있어서, 피해자 실험집단이 피해자 통제집단보다 높을 것이다.

<표IV-6> 피해자의 실험·통제집단 하위척도 간 사후 비교

집단	구분	M	SD	t	p
민감성	실험	7.30	1.33	7.08	.00
	통제	8.70	1.15		
만족도	실험	10.60	1.42	2.50	.02
	통제	8.60	2.01		
의사소통	실험	12.80	1.81	3.14	.00
	통제	10.50	1.43		
개방성	실험	11.50	1.35	3.11	.00
	통제	9.40	1.64		
이해성	실험	11.20	1.68	1.32	.20
	통제	10.30	1.33		
신뢰감	실험	10.40	1.83	4.82	.00
	통제	7.40	.69		
친근감	실험	8.80	1.13	3.50	.00
	통제	6.90	1.28		

<표IV-6>에서 보면 피해자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하위척도의 차이는 이해성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유의도 수준 .05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2. 정성적 분석 결과

앞서 제시한 대인관계척도의 정량적 분석결과는 오행상담프로그램이 내담자의 대인관계에 대한 가치와 태도를 변화시켰다는 양적증거이다. 이러한 양적증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회기별로 작성한 집단원의 활동지 및 상담자의 관찰 내용을 통해서 정성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편의상 몇 개의 소제목으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1) 1회기 학교폭력이란??

오행상담프로그램의 도입부분에서는 자신이 왜 상담을 받게 되었는가를 돌이켜보도록 한다. 초기 레포 형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 행동을 의식하도록 하여 상담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때문에 학교에서 보낸 상담요청서와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진위를 파악하기보다는 내담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주려 하였다.

본 1회기 [학교 폭력이란??]에서는 학교폭력과 자신과의 관계를 적을 수 있도록 하는 활동지를 실시하였다. 실시결과 실험집단의 가해자 10명중 5명은 자신이 상담실에 온 주 내용을 부인하여 피상적인 내용을 적었고, 3명은 폭력의 정도를 축소시켰고, 2명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원인이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실험집단의 피해자 10에게 같은 활동지를 사용하였는데, 6명은 자신이 당한 내용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반면, 4명은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림 IV-1]은 본 회기에서 활용한 활동지이다. 활동지는 제목은 '폭력에 관한 처벌'이다. 내용은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다른 강의를 실시하였다. 즉, 가해자들에게는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중심의 설명을 하였고, 피해자들에게는 법안에서 자신들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내용중심으로 교육하였다. 강의를 마친 후에는 자신과 학교폭력의 상관관계를 적도록 한 가해자의 예이다.

폭력에 관한 처벌



"학교폭력"이라 함은 학교내외에서 학생간에 발생한 폭행, 협박, 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체, 언어, 관계, 사이버 폭력은 나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나는 10등이긴
 친구를 하고 나서 머리가 아파서
 반에 들어가 자면 자고 일어나면 친구가
 저의 밥을 밥을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때때 근데 이것은
신체적 폭력 과 관련이 있다.

[그림 IV-1] 1회기 [학교폭력이란??] 활동지의 예

2) 2회기 오행의 이해

2회기에서는 오행에 따른 성향을 설명하기 위해 오행체크리스트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향을 가늠해볼 수 있도록 설명해주고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성향과 어떤 부분이 같고 다른지 생각해보도록 하는데 활용하였다. 하지만, 이 오행체크리스트는 신뢰도와 타당도에서 검증된 것이 아님을 설명해주었고 다만, 이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자신의 성향과 타인의 성향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참고하여 생각해보라고 당부하였다. 그림 [그림 IV-2]는 오행체크리스트의 활동을 한 예이다.

<회기2-활동지1>오행 체크리스트

❖ 다음 문항을 끝까지 잘 읽고 나의 성향이나 행동과 비슷한 것을 찾아서 체크란에 체크하고 개수를 쓰세요.

성향	내용	체크	개수
목	부정적인 걱정보다, 불확실할지라고 희망적인 계획에 대하여 말하고 싶다.	✓	5
	나는 나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고 싶다.	✓	
	나는 되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사람이다.	✓	
	사색을 하며 나의 미래에 대해 상상해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	
	고통과 슬픔에 잠겨있기보다 해결책을 찾아 노력하는 편이다.	✓	
	나는 기발한 생각들로 남들을 깜짝 놀라게 한다.		
화	나는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잘 찾아내기 때문에 항상 우호적일 수 없다.		2
	눈에 가시처럼 여겨지는 사람이 있어서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위해 나를 포기할 수 있다.	✓	
	남들은 내가 따지길 좋아하고 욕한다고 하지만, 난 이해가 되지 않을 뿐이다.		
	나는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 싸우는 것을 겁내지 않는다.	✓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바로잡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며,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 한다.		
토	화가 났는지 남들이 눈치 채지 못할 경우도 있지만 쉽게 풀리지 않는다.	✓	3
	나의 모든 감정을 인정해버리면 무너져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종종 든다.		
	'신이 만들어놓은 환경 속에서 시험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	✓	
	바로 부딪치기보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나 파악한다.	✓	
	말을 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편하다.		
	나는 내가 느끼는 감정을 완벽하게 표현하기가 힘들다.		
금	규정은 지켜져야 하기에 가까운 사람이라도 규정에 어긋나는 일을 눈 감아 주어서는 안된다.		1
	규칙이나 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보면 불편하다.	✓	
	큰일을 위한 작은 희생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규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편하다.		
	모든 일에는 절차가 있고 절차를 무시하면 안 된다.		
	불합리해보이더라도 전통이라면 이유가 있을 것이다.		
수	어떤 일이든지 내가 하는 일에서 최고의 권위를 갖고 싶다.	✓	4
	다른 사람의 가능성을 잘 찾아내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 알고 있다.		
	좋은 결과를 위해 임기응변으로 타협하는 것은 능력이다.	✓	
	내 뜻대로 사람을 조정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조직에서 나의 의견을 수렴시키기 위해 누구에게 어떻게 말해야하는 지를 쉽게 아는 편이다.	✓	
	갈등이 생길 때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	✓	

[그림 IV-2] 2회기 오행체크리스트의 활동 예

다음의 상담내용은 오행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상담자가 내담자 스스로 자신의 성향을 오행에 맞추어 대인관계에서 문제행동을 이해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상담자 : 이 오행체크리스트는 꼭 ‘넌 이런 사람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검사는 아니야. 다만, 이러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에 유념해서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좋겠어.

내담자 : 예.

상담자 : 선생님이 보니까 ○○는 목이 5고, 수가 4, 토가 3, 화가 2, 금이 1이구나. 이걸 보니까 ○○는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아이인거 같아. 그래서 많은 일들을 벌이고 또 그 많은 일들을 그럭저럭 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고. 넌 항상 바쁘다 힘들다 하지만, 결국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 심심하다고 느끼고 몸을 움직여야만 하는 사람인거 같은데 맞니?

내담자 : 예.

상담자 : 목은 나무인데 보니까 나무에 물을 줄 수 있는 수도 있고, 뿌리를 잡아 줄 수 있는 토도 있구나. 이걸 어찌면 너의 관심들을 뺏어나갈 수 있도록 2차적 성향들도 널 도와주고 있다는 건데, 어찌면 넌 너의 관심이 하루아침에 생겼다고 하기보다는 마음속에서 깊이 간직했던 것을 이루려는 성향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런 하고 싶은 일을 위해 주위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한다던지 융통성도 부릴 줄 알고 말이야. 하지만 넌 금이 없어. 금은 어찌면 도끼이고 나무를 베는데 활용해서 너의 호기심이나 욕구를 베어버릴 수도 있지만 때론 도끼나 가위로 나무의 가치를 치기를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돼. 만약 가치가 뺏어나는데 가치를 치지 않으면 그 관심이 한 곳에 몰리 수 있을까? 그러면 과연 과실을 제대로 맺을 수 있을까?

내담자 : 아니요. 사실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근데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냥 그때그때마다 바뀌어요.

상담자 : 이번에 네가 친구들과 떨어진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내담자 : 왜요?

상담자 : 앞서 말했듯이 넌 호기심이 많고 관심이 많아. 그래서 이 친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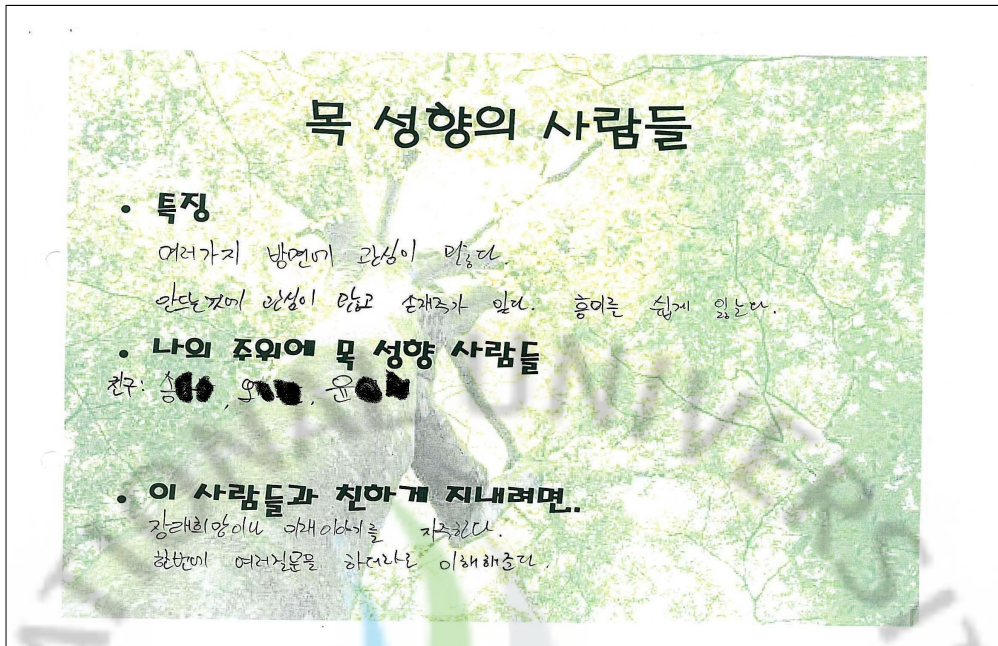
사귀고 싶고 저 친구도 사귀고 싶지. 하지만 너와 가장 친하다고 여겼던 친구가 어느 순간 너보다 다른 친구들에게 더 관심이 있으면 넌 기분이 어떨 것 같니?

내담자 : 상관없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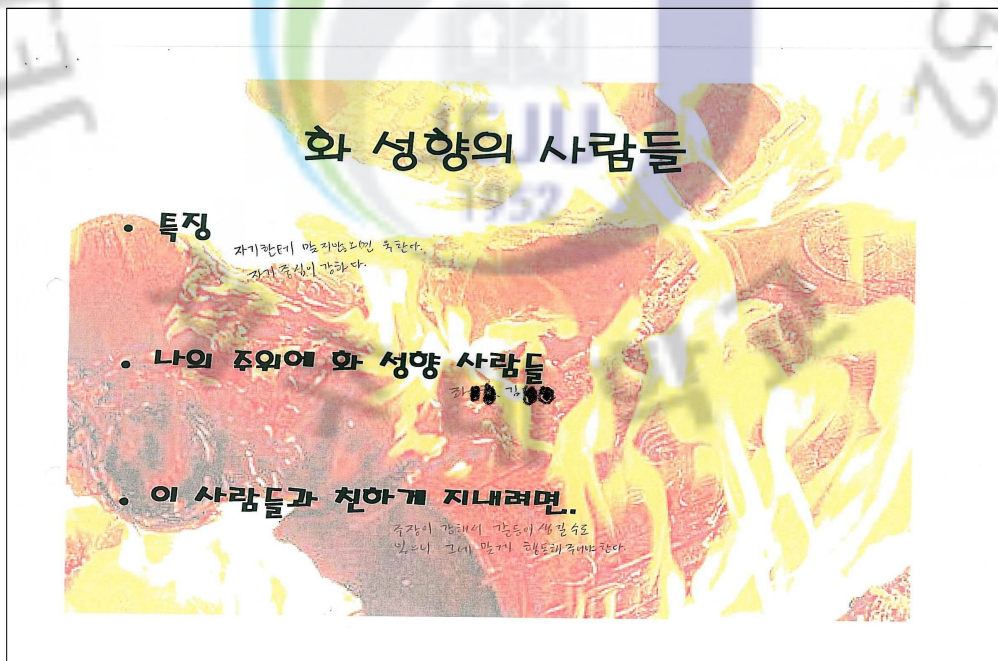
상담자 : 그래 넌 상관없다고 말하지. 넌 친구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할 테니까 말이야. 선생님이 네가 친구들을 가지 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때론 정말 소중한 친구를 지키고 소중하게 생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

3) 3~7회기 각 성향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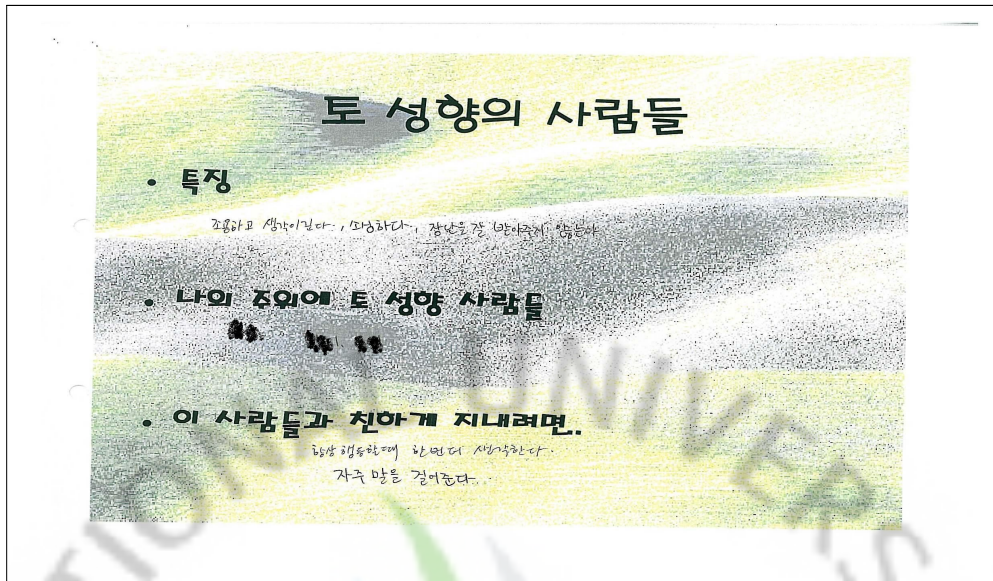
3~7회기는 인정받고 싶은 木, 강해지고 싶은 火, 진실을 알고 싶은 土, 규칙을 지키고 싶은 金, 조정하고 싶은 水의 각 회기별로 성향에 따른 특징과 주변의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그 성향의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낼 수 있는 건지 파악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상담자가 각 성향별로 성향의 특징에 관한 강의를 해주었다. 그리고서 활동지를 통해서 먼저 그 성향에 가까운 사람들을 생각하고 적게 끄 하였고, 그 이후에 그 성향의 사람의 특징을 탐색해보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그 성향의 사람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적은 후 상담자와 나누어 보도록 하였다. 이 중 가해자 학생들은 타인의 다양한 성격들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타인을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았다고 하였고, 피해자들은 자신을 괴롭히던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면서 서로의 입장 차이를 파악하였다. 그림 [그림 IV-3], [그림 IV-4], [그림 IV-5], [그림 IV-6], [그림 IV-7]는 각 각 木, 火, 土, 金, 水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활용한 활동지의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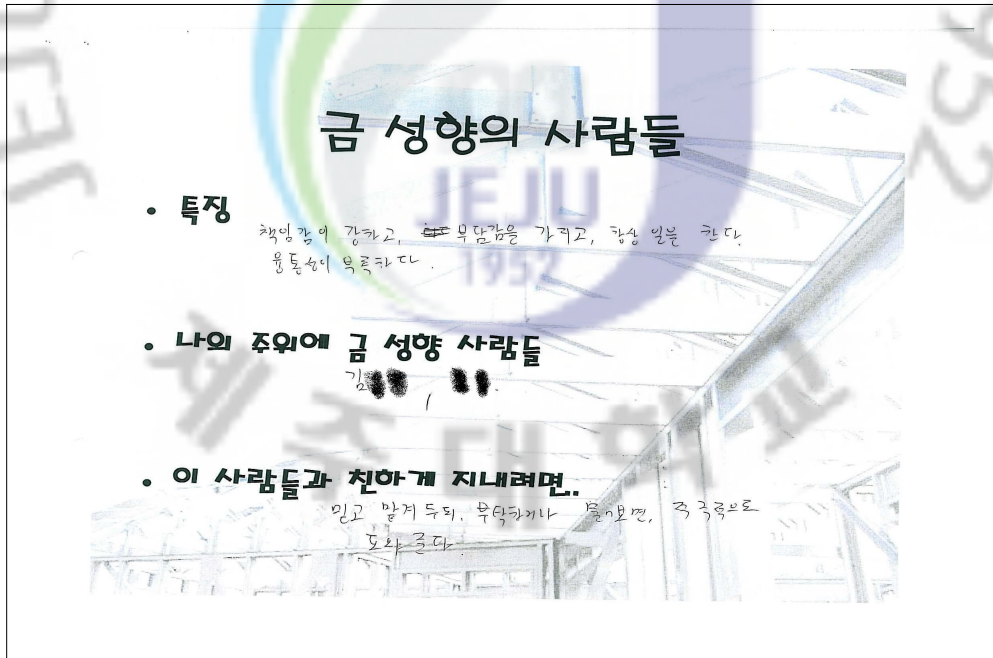
[그림 IV-3] 3회기 인정받고 싶은 목의 활동지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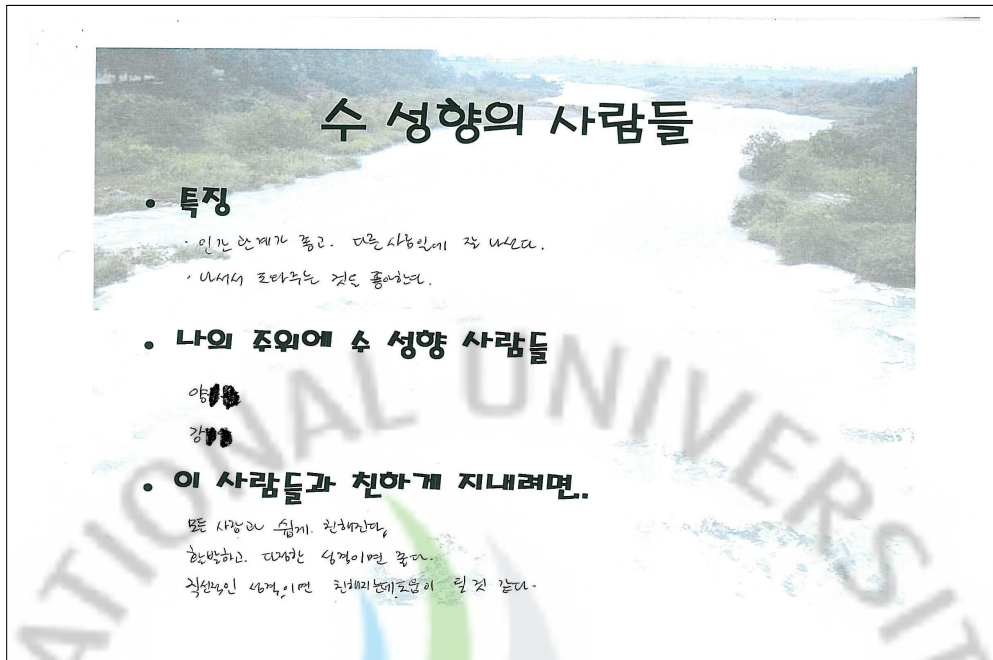
[그림 IV-4] 4회기 인정받고 싶은 화의 활동지 예



[그림 IV-5] 5회기 인정받고 싶은 토의 활동지 예



[그림 IV-6] 6회기 인정받고 싶은 금의 활동지 예



[그림 IV-7] 7회기 인정받고 싶은 수의 활동지 예

다음의 상담내용은 3~7회기를 통해서 가해자인 내담자 스스로 자신의 성향과 타인의 성향을 오행에 맞추어 이해하면서 대인관계의 특성을 파악한 후 느낀 점을 나누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내용은 실험집단의 가해자학생들이 대인관계척도의 하위영역인 이해부분에서 뚜렷한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통제집단이 실험집단보다 평균점수가 높은 점수가 나왔는데 타인의 성향에 대한 재인식의 혼란스러움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 여겨진다.

상담자 : 너의 주위의 있는 사람들을 오행에 맞추어 찾아보고 특성을 파악해보니 어떠니?

내담자 : 잘 모르겠어요.

상담자 : 지금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오행을 모르겠다는 거니? 아니면 사람들을 모르겠다는 거니?

내담자 : 둘 다요.

상담자 : 음.. 선생님이 네가 하는 말이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러는데 좀 더 자세히 말해줄래?

내담자 : 지금까지 사람들을 대충은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사람마다 이렇게 틀릴 수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지금까지 친하다고 생각하고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잘 모르겠고.. (침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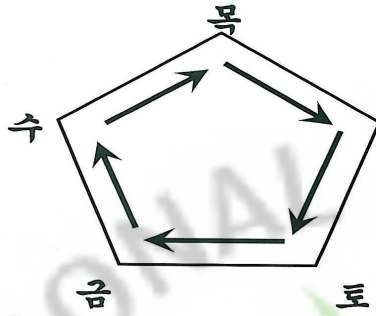
상담자 : ○○야, 지금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다는 걸 알아버리니깐 좀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끼는가 보구나. 그래도 선생님이 참 반갑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이 들거든. 지금까지 ○○는 친구들의 성향을 몰랐었어. 하지만 지금 혼란스럽다는 건 아무도 몰랐던 것보단 조금은 발전했다는 거지. 몰라서 잘못했던 건, 그리고 지나버린 건 어쩔 수 없어. 앞으로가 중요해. 네가 몰라서 혹은 너는 장난이었을 행동들이 결국엔 상처를 주었고, 그것이 서로의 성향이 다르기 때 문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았으니 앞으로는 좀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까 기대해본다. 잘 할 수 있지?

내담자 : 아마도요..

4) 8~9회기 오행의 상생과 상극

8~9회기는 오행의 상생과 상극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자신의 성향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탐색해보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서 자신의 어떠한 성향이 타인에게 장점이 될 수 있고 다른 타인에겐 또 어떤 방식으로 단점이 될 수도 있는가를 확인해보도록 하였다. [그림 IV-8]과 [그림 IV-9]는 상생과 상극의 관계를 파악한 후 활동지를 작성한 예이다.

오행의 상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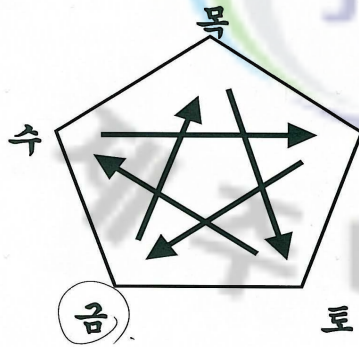
목의 창의력은 **화**의 열정에 밀려감이 되고,
화의 열정은 **토**의 가슴 속에서 깊은 열망이 됩니다.
토처럼 열망을 간직한 사람은 **금**과 같이
 유혹을 절제할 수 있고, **금**의 규칙이 익숙해졌을
 때 **수**처럼 융통성을 보일 수 있고, **수**의 자유분방
 함은 목의 창의력에 녹아 듭니다.

나는 매일 별장적인 점이 있는데 한 점이 있는데
 이러한 이유에서 김관진에게에게
같이 공부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

[그림 IV-8] 8회기 오행의 상생 활동지의 예

오행의 상극



금의 신중함은 목의 도전을 망설이게 하고,
 목의 도전은 **토**가 안고함을 무너뜨립니다.
토의 안고함은 **수**의 융통성을 억제시키고,
수의 융통성은 **화**의 옹고 그림을 가리는 마음까
 지도 풀어버립니다.
화의 열정적인 마음은 **금**의 규칙에 얽매이는 걸
 거부합니다.

나는 근거 한 점이 있는데
 이러한 이유에서 양동원 (목)에게
새로운 시나 쉐 컨셉과 다른 생각을 이해하려 못하는
비판하는

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

[그림 IV-9] 9회기 오행의 상극 활동지의 예

다음의 상담내용은 8~9회기를 통해서 내담자가 자신의 성향이 좋거나 나쁘다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맞추면서 교류해야하는가를 파악해 나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상담자 : 저번시간에 했던 상생하고 오늘 배운 상극의 내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니?

내담자 : 완벽한 사람은 없다?

상담자 : 어떤 이유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내담자 : 어떤 사람의 성격은 누구한테 잘 맞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맞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상담자 : ○○가 정확하게 파악했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었으니 어떤 마음이 드니?

내담자 : 어.. 모두와 친해질 필요는 없겠다?

상담자 : 음.. 괜찮은 생각인거 같아.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오행의 상생과 상극대로라면 누군가에게는 꼭 어떤 적이 있어야 할 테지만, 우리 주위에서 보면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이 참 많다 그지? 너한테 말 걸어줘서 고마웠다는 ◇◇도 그렇고..

내담자 : 네.

상담자 : 그건 말이야. 어쩌면 서로의 성향을 조금 이해하고 조금씩만 조심하면 오히려 지금 모두가 좋아하는 네 친구 ◇◇보다 더 쉽고 빠르게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말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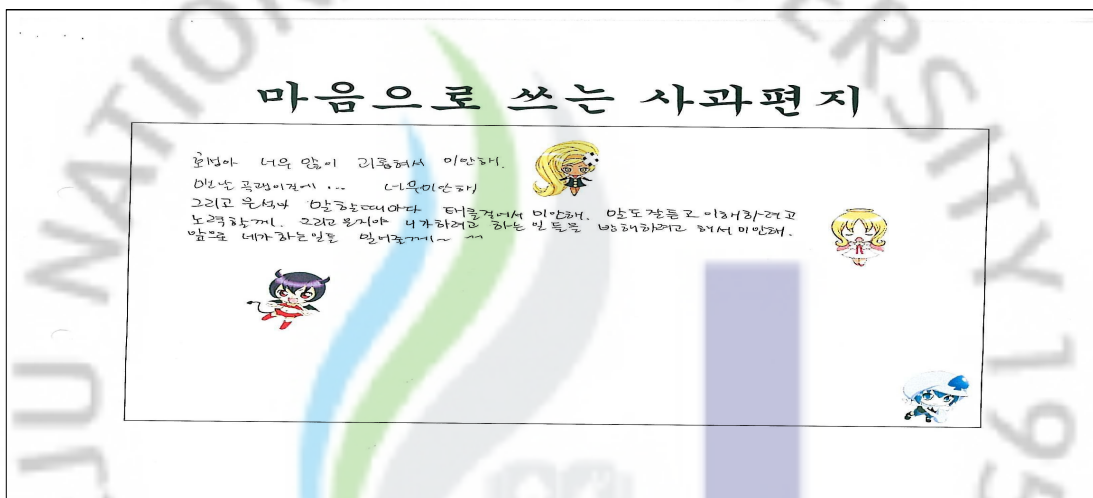
내담자 : 헐.. 그럴지도..

상담자 : 아니야. 헐이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앞으로 좀 더 멋진 인간 관계를 위해서 오늘 배운 것을 실생활에서 써보겠다고 선생님이랑 약속하자. 자(손가락을 내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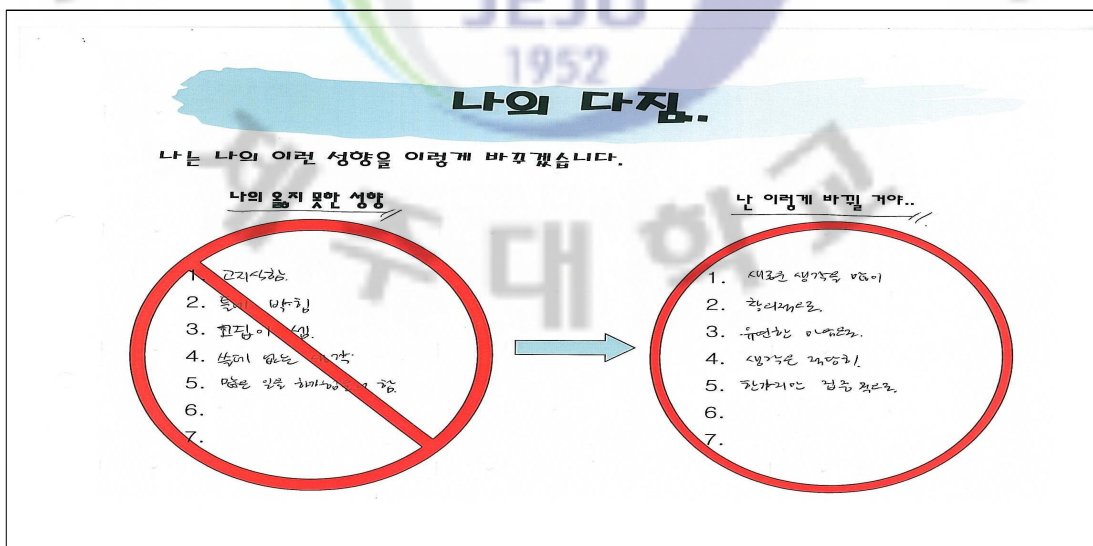
내담자 : 헐.. 알겠어요.(약속을 한다)

5) 10회기 오행을 통해 실생활에 적용하기

10회기에서는 마지막회기로서 오행상담프로그램을 정리하면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서는 [마음으로 쓰는 사과편지]와 [나의 다짐] 활동지를 실시하였다. [마음으로 쓰는 사과편지] 활동지는 가해자학생들에게만 실시하였고, [나의 다짐] 활동지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실시하였다. [그림 IV-10]과 [그림 IV-11]은 10회기 활동지의 예이다.



[그림 IV-10] 10회기 '마음으로 쓰는 사과편지'활동지의 예



[그림 IV-11] 10회기 [나의 다짐]활동지의 예

V. 요약, 결론 및 제언

1. 요약

본 연구에서는 인천 N교육청에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대인관계 문제로 의뢰되어 오는 학생과 인천소재 중학생들 중에서 징계 혹은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에 참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학생 40명(가해20명, 피해2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대상이 전부 모일 때까지 내담자들에게 접수면접 이후 대인관계 사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별도의 여과 없이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빠른 개입의 필요성을 자각하여 오는 순서대로 프로그램에 투입시켰다. 내담자들로부터는 빠지지 않고 출석하겠다는 다짐을 받아 프로그램 중 누락된 학생은 없었다. 연구 설계를 집단상담으로 계획하였으나 상담현장에서 긴급하게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상황에 맞물려 참석 시기별로 이른 대상을 상담집단, 늦은 대상을 통제집단으로 배정하여 개인상담 형식을 취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실험 후반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비율이 일정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담자들에게 연구를 위하여 시간조정을 가하지 않았다. 4가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한명의 내담자에게 약 2주간 10회에 걸쳐 매회 50~60분정도를 소요하였다. 그리고 통제집단은 접수면접 이후 사전, 사후검사에만 참여시켰다.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는 Schlin과 Guerney의 대인관계 변화척도(Relationship Change Scale)를 우리 실정에 맞게 문선모(1980)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여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 처리하였다. 이를 통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대인관계 사전, 사후 간 차이를 위기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검증하였다. 또한 정성적 분석을 통하여 내담자들의 활동지와 관찰내용을 분석하여 정량적 분석의 내용을 보완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하여 대인관계에서 긍정적인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그 결과 프로그램의 효과가 인정되었다. 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의 하위영

역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도 있는 반면 차이가 없는 것도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의 가설을 크게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눈 이유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내 두 그룹의 차이가 커서 동질성을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가설은 가해자 집단과 피해자 집단으로 나누고 각각의 집단에서의 사후총점의 평균을 비교하여 유의미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대인관계하위영역에서 다시 프로그램의 유의미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가해집단과 피해집단 모두 평균총점에서는 긍정적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가해자집단의 하위영역에서는 민감성과 의사소통, 개방성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다른 영역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특히 이해성에서는 통제집단의 사후검사 총점이 더 높았다. 또한 피해자 집단에서는 민감성, 만족감, 의사소통, 개방성, 신뢰감, 친근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이해성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표V-1>와 같다.

<표V-1> 실험집단의 유의미한 차이확인

하위영역 \ 집단	가해	피해
민감성	有	有
만족도	無	有
의사소통	有	有
개방성	有	有
이해성	無	無
신뢰감	無	有
친근감	無	有
총점	有	有

*有는 효과 있음, 無는 효과 없음.

2. 결론

이상의 연구결과에 기초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첫째, 본 연구의 오행상담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대인관계 증진에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후검사 총점의 평균 비교를 통하여 그 효과성이 유의미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상담현장에서 우리 고유의 정서를 축소시키고 인간의 큰 틀에서만 접근할 수밖에 없는 외국의 이론들을 번안하여 차용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리의 깊은 정서까지도 탐색할 수 있는 우리나라 고유의 상담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내담자를 도울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한 결과로서 의미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오행상담프로그램은 가해자집단의 대인관계 하위영역에서 부분적으로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즉, 민감성, 의사소통, 개방성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타 영역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이해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은 주저자인 상담자가 학생들과 면담을 통해 얻은 사실, 즉 가해자 학생들이 타인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오행상담프로그램을 받고나서 자신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증언한 것과 관련성이 있어 보인다. 만족도인 경우 그 효과 유무를 파악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으로 가해자 학생들은 대부분 교우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학교 이외의 환경에서 폭력의 피해자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학교 내에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자신과 타인, 교우관계의 만족감에 대한 질문에 대해 자신의 입장에서 되돌아보고 숙고하는 시간이 적었을 수 있다. 친근감은 오랜 기간 동안 동고동락하며 서로에게 애뜻함, 보호, 도움주기 등과 같은 아껴주는 마음과 감정을 주고받으면서 생겨나는 것(김기범, 김미희, 최상진, 2002)이다. 그러므로 가해 친근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이유가 집단을 통한 소사회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가해학생들은 징계로 상담실에 온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상담과정 중에 가해학생들의 2차적 가해행동 예방이라는 가시적인 목적을 내포하고 있었다. 때문에 상담현장에서 내담자가 상담자와의 충분한 감정의 교류를 느끼기보다 강압적인 교육을 받고 있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상담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으로, 가해자 학생들은 자신의 주 문제를 솔직하게 적기보다는 자신의 과실을 부인하거나 축소하고 또는 문제의 원인을 타인에게 돌렸다. 신뢰감 하위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못했던 것도 프로그램 시작 전에 내담자가 법적인 문제에 걸릴 경우에는 상담자의 비밀보장 원칙에서 제외된다는 정보를 제공받음으로 내담자 자신의 추가 가해사실을 숨기기위한 방어적인 행동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요컨대, 하위 영역에서의 부분적인 효과는 궁극적으로 가해자들이 자신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반성으로 인한 결과이며, 자신의 잘못을 숨기려 하는 행위 자체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의 오행상담프로그램은 가해자학생들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셋째, 연구의 오행상담프로그램은 피해자집단의 대인관계 하위영역에서 이해성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해의 척도에서 피해 집단을 가해 집단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피해 집단이 높았다. 이 사실을 개인이 자신의 신념이나 태도와 어긋나는 대상과 마주칠 경우 인지부조화를 줄이기 위하여 대상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다르게 재해석하거나 혹은 그들이 받아들이는 대상에 있어서 특정 부분들의 중요성을 깎아 내린다(Eiser, 1986, 이계일, 2003, 재인용)는 인지부조화이론을 통해서 해석하고자 한다. 정량적 분석결과 피해자들은 학교폭력을 당하고 나서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보였는데 즉, '죽이고 싶다' 혹은 '복수하고 싶다'는 것을 표현하며 상담자에게 가해학생들의 처벌을 요구하거나, 피해상황의 강도를 낮추어 보고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타인에게 폭력을 당했을 때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피해학생들이 행동패턴으로 보인다. 즉, 자신이 약자임을 인정하여 그 상황에서 타인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자신이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인정해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폭력상황 대처 및 인정은 이해척도의 문항인 타인의 느낌이나 자신의 느낌을 잘 지각하고 있다는 오류를 범하였고,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고 싶지 않다는 소망을 담아 '장래의 원하는 대인관계를 얘기하고 싶다'는 문항에도 높은 점수를 주었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이유로 피해학생들은 이미 높은 이해성 점수를 획득하고 있었기에 정량적 분석에서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지만, 정성적 분석결과 오행상담프로그램을 통해서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갖는 법과 대인관계에서의 상생과 상극의 작용을 파악하여 적절한 대처 방식의 올바른 인간관계를 숙지하게 되었음이 밝혀졌다. 또한 김은정, 권정혜(1998)는 우울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불편 감을 호소하며,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즐거워하지 않는다고 하였음에도 피해 집단의 정량적 분석결과에서 정성적 분석결과 효과 있음이 밝혀진 이해성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긍정적 효과가 보고 되었다. 이는 오행상담프로그램이 피해학생들에게 효과적인 정서적 지지와 대인관계 기술을 교육하면서 피해 집단의 내담자들에게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즐거움을 일깨워준 결과로 보인다.

3. 제언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몇 가지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실제 상담현장의 경제성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집단상담프로그램을 강조하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폭력과 같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내담자들에게 만큼은 개인상담의 질적인 서비스가 중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개인상담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후속연구에서는 여러 유형의 성향을 직접체험해 보면서 소사회를 경험할 수 있는 집단 상담형식의 프로그램 연구를 통해 그 효과의 차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오행체크리스트를 통하여 내담자가 오행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사용하였다. 하지만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지 않아 심리검사가 아닌 체크리스트로 활용하여 내담자를 구분할 수 없었다.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오행사상이 비판받는 탄생학적인 구분에서 벗어나서 체계적이고 객관화될 수 있는 오행에 관한 심리검사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있어 사회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정상적인 청소년이 아닌 대인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를 겪고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때문에 후속연구에서

는 정상적인 청소년들에게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동일한 효과를 보이는지와 정상적인 청소년들에게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지각자 효과를 통해 대인관계의 증진을 꾀하기 위해서 개인성향과 타인성향을 파악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성향이해뿐만 아니라 오행의 상생과 상극의 유기적인 관계적 파악에 대한 연구를 보장하여 대인관계에 직접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관계 맺기 기술에 집중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 프로그램은 학교현장에서 실시된 프로그램이 아닌 까닭에 학교폭력 가해자 및 피해자 청소년들이 실제 학교로 돌아가서 프로그램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지를 위한 추후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제약받았다.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프로그램 이후 추후 검사를 할 것을 제안한다.

끝으로 그동안 오행을 활용해 상담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어 연구자임의대로 프로그램을 설계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제한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연구를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 강진원(2003). (알기 쉬운)역의 원리 : 주역·음양오행·사주명리의 길잡이. 정신세계사. 75-76쪽.
- 권대도(1998). Sullivan의 대인관계이론에 있어서 부적응행동의 발달과 치료. 카톨릭 상지전문대학, 제18집. 189-202쪽.
- 김기범, 김미희, 최상진(2002). 한국인의 대인관계에서의 기본도덕으로서의 의리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Vol.8. 79-97쪽
- 김명화(2005). MBTI 자기성장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자아정체감, 자기효능감 및 대이노관계능력에 미치는 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1쪽.
- 김명권, 심혜숙(1997). 비행청소년을 위한 MBTI 성장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한국심리유형학회지. 제4권. 52-78쪽.
- 김성남(2003). 에니어그램 집단상담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자아정체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임상보건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봉(2004). 다중지능이론을 활용한 환경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분석. 한양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82쪽
- 김은정, 권정혜(1998). 우울증상과 관련된 대인관계 특성 : 성인기 애착관계 형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Vol.17. 156쪽.
- 김인규(1996). 때리는 아이들의 세계. 청소년대화의 광장.
- 김장이(1999). MBTI 성격이해 프로그램이 대인관계와 집단응집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가톨릭대학교 심리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4쪽.
- 문선모(1980). 인간관계훈련 집단상담의 효과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 박건예(2000). Holland의 RIASEC유형에 따른 성격형용사 분석.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2-23쪽.
- 신용대(2007). 사주학의 혁명. 답게. 78-80쪽.
- 심혜숙, 곽미자(1997). 비행청소년의 부모를 위한 MBTI성장프로그램 개발과 효과검증. 한국심리유형학회지, 제4권, 1-28, 42-78, 53-78.
- 안창일(2008). 임상심리학 (개정증보판). 시그마프레스. 255, 274, 442쪽.

- 어윤형(2001). **오행은 뭘까?**. 세기.
- 윤희(2004). **음양오행사상과 사계절 컬러론의 색채를 바탕으로 한 이미지 스타일링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3쪽.
- 이계일(2003). **포스트구조주의의 범 이론적 변용**.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21-122쪽.
- 이상진(2007). **성격유형 탐색 집단상담이 대학생의 자기개념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5쪽.
- 이수련(1999). **MBTI를 활용한 대인관계향상프로그램이 대학생의 대인관계 향상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5쪽.
- 장정주, 김정모(2008). **정서적 자각, 표현, 및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과 대인관계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한국심리학회. 308-309쪽.
- 장휘숙(2004). **청년심리학**. 박영사. 99쪽.
- 전종국(1998). **집단상담과정에서 대인관계태도와 자기검색수준이 성장촉진요인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1쪽.
- 정국용(2006). **현대사주명리학**. 중문출판사. 43-44, 60쪽.
- 정태인(2009). **사주풀이 배우기**. 넥서스Books. 148쪽.
- 정준교(1997).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가치지향성과 대인관계 성향과의 관계분석**.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쪽.
- 정태연(2000). **공격성 지각에 대한 대인관계적 분석 : 가해집단과 피해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Vol 13. 80-81쪽.
- 정청암(2009). **쉽게 풀 수 있는 내 궁합 사주팔자(개정판)**. 문원북. 47-52쪽.
- 조영란(2006). **오묘인 성격특성과 대인관계성향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4쪽.
- 조용현(2002). **조용현의 사주명리학 이야기**. 생각의 나무. 337-339쪽.
- 조윤경(2003) **한국인의 나의식-우리의식과 개별성-관계성, 심리사회적 성숙도 및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학술저널. 92쪽.
- 주은연(2008). **긍정적 심리학을 적용한 원예치료가 문제아동의 창의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대구카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7쪽.

- 문용린(2009). 2008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청소년폭력예방재단. 106-107쪽.
- 최상진, 이장주(1999). 정의 심리적 구조와 사회-문화적 기능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Vol.13. 223쪽.
- Bennet, E. A(2005). 김형섭 역. **한권으로 읽는 용**. 푸른숲. 80쪽.
- Corey, Gerald(2005). 김춘경 역. **집단상담기법**. 시그마프레스. 67쪽.
- Durant, Will(2007). 임현영 역. **철학이야기**. 동서문화사. 104쪽.
- Leszcz, M(1992). **Interpersonal approach to group psychotherapy. international journal of group psychotherapy**. 42(1), P37-62.
- Spiegler, Michael D(2005). 전윤식 역. **행동치료**. 시그마프레스. 282쪽.
- Ortega Y Gasset, Jose(2006). 정동희 역. **철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167쪽.
- Chance, paul(2004). 김문수 역. **학습과 행동**. 시그마프레스. 282-285쪽.
- Riso, Don Richard(2009). 주혜명역. **에니어그램의 지혜**. 한문화. 129, 265, 331, 365, 398쪽.
- Eiser, Richard (1986). **Social Psychology: Attitudes, Cognition and Social Behaviour**. Cambridge Univ. Press, p.90-92.

<Abstract>

**The five elements counseling program's effect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adolescents**

Major in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ng Joon Kim

Supervised by professor Sung Bong Kim

Several times opening a court process it led with since then where 2004 school violent law is enforced the recognition of the people was turning out change. Enough simplification it makes the violent problem of the young people inside the schools at passage formal degree of the process and the core awaking from the thoughts which are idle throws away it perceives, to start. To improve adolescent's school violent problem from this personal relationship recently many researchers proves the effectiveness to apply various program to client troubling relationship like school violence and they are announcing.

It relates with a school violence from the research²⁾ which it sees and the young people who appeal a personnel relationship problem in the center, instead of the Western theoretical our culture where the ideology and sense of value of the Westerner, at five elements are melting and our emotions are reflected a program with character it produces and executes. Also considering seriously the principle of economical efficiency from consultation site, the necessity of the personal counseling comes to be overlooked, it is a critical confrontation with

2) This thesis submitted to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9.

the consultation today. It has two branch concept which application personal counseling format and five elements program. From the research, will be able to grasp the extreme features of personal relationship related with the school violence and apply to adolescent, it proves a 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improvement possibility. Also Throughout the investigation about the effect of personal relationship and the change process of it, we trying it will lead the personal counseling program which is based to five elements program what kind of effect to the assailant and the victim and the personal relationship.

T verification result regarding the personal relationship standard (N=40) from the research, this personal counseling program were verified an affirmative effect statistically in personal relationship increase between the assailant and the victim. But, it reveals t verifications for each subordinate of personal relationship throughout existing personal propensity leads the programs which a personnel relationship increase. But this program has no meaningful effect. Throughout observationing contents and activity, the researcher searched about this doubt the reason the sincere analytical result attaching it searched.

Finally the result of the research which it sees the assailants where the personal counseling program which is based at five elements relates with a school violence and the victim students all personal relationship has the affirmative change possibility. Especially out of subordinate personal relationship we show from changing standard by understanding and recognizing has meaningful change.

From the research which it sees the inconvenient point in-depth consultation of the individual from description below hazard does not execute the group consultation it will be able to experience personal counseling format withdrawal was the thing is becoming strong point and weak point. Namely, experience which leads a group consultation is the part which it misses because is a personal counseling format. Also there are many problems this program generalize to general adolescents as to program objective selection from young people undergo a problem in personal relationship. But despite it soaks to the here and there of our life and to think with superstition, by five manners human propensity classifications which it classifies from epidemiology and it understands the human

propensity of the private talk it used there is questionable matter. From the research only to overcome nonscientific problems from birth classifications of epidemiology , the part did not taken. Also on the base of the human propensity which is classified from five lines personal counseling program, by executing proves the effect, understanding a human propensity from personnel relationship will have affirmative effect, not only foreign theory but also the possibility of classification system has an effect will be able to confirm as well.

Namely, it will escape from viewpoint of existing theory foreign nation which understands a personal propensity, it means that has become the opportunity of the human propensity understanding. And ultimately based on at five elements understanding a personal propensity will become a foundation in research looking for various possible causes to personal relationship, the possibility can help in the research which examines closely a difference human relation to be conflict and win-win at five manners.

At last, I'm gonna tell on base of the result of research.

First, we have to need to research on concentration to relationship technic not only propensity of the individual relationship but also propensity of the conflict and win-win.

In afterwords, the general students not students who undergo the personal relationship problem which is involved in school violence will be researched about generalizing research and concrete manuals research. Also, I confirm necessity of after-test for persistence of program.

Finally, we need psychology test development can up to scientific field our traditional five elements phenomenon mistaken a superstition because of birth manners about five elements check list research.

부 록

<부록1> 대인관계척도

<부록2> 오행상담프로그램 회기 안 및 활동지



<부록1> 대인관계척도

본 검사의 이름은 대인관계척도 입니다. 저는 이 검사를 통하여 여러분 자신이 대인관계에서 느끼는 만족감, 의사소통, 신뢰감, 친근감, 개방성, 이해성, 민감성의 7가지 요인들을 알아보하고자합니다.

본 검사의 용도는 여러분이 대인관계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과 추후 상담을 마쳤을 때 대인관계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하는 목적, 그리고 상담이나 집단적인 연구목적으로만 활용되어집니다. 그러나 비밀이 보장되지 않으며 염려하실 부분은 없습니다.

본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여러분이 각 검사문항에 대하여 솔직하게 응답해주셔야 보다 정확한 자신의 대인관계정도를 알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적절한 상담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검사를 실시하는 동안에 시간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각 문항에 대한 정답과 오답은 없습니다. 문항 하나하나를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편한 마음으로 읽어보시면서 현재 자신의 상태에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문항에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검사를 실시할 때 유의할 점은 자신이 느끼는 대로 문항도 빠트리지 말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과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문항을 고르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2009년 1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 김 성 봉

연구자 : 김 성 준

내 용	전혀 그렇 지 않다	대체 로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 로 그렇 다	항상 그렇 다
1.나는 인간으로서의 나 자신에 대하여 만족한다.	1	2	3	4	5
2.나는 인간으로서의 다른 사람에 대하여 만족한다.	1	2	3	4	5
3.다른 사람이나 친구들은 나를 만족하는 사람으로 볼 것으로 느낀다.	1	2	3	4	5
4.다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인간으로서 만족한사람으로 본다.	1	2	3	4	5
5.다른 사람들과 나의 관계는 원만하다.	1	2	3	4	5
6.나는 다른 사람의 욕구나 바라는 것을 잘 깨닫고 있다.	1	2	3	4	5
7.나는 나 자신의 느낌을 잘 이해한다.	1	2	3	4	5
8.나는 다른 사람의 느낌을 잘 이해한다.	1	2	3	4	5
9.나는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함께 있어서 어려움을 느낀다.	1	2	3	4	5
10.인간으로서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감수성은 빠르편이다.	1	2	3	4	5
11.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관심이나 온정적 태도가 많다.	1	2	3	4	5
12.다른 사람에 대한 나 자신의 표현이나 개방성이 많다.	1	2	3	4	5
13.나는 다른 사람의 느낌을 잘 이해한다.	1	2	3	4	5
14.나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다.	1	2	3	4	5
15.나는 다른 사람을 잘 신뢰한다.	1	2	3	4	5
16.나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항상 거리감을 느낀다.	1	2	3	4	5
17.대인관계에 있어서 나는 자신감이 많다.	1	2	3	4	5
18.나는 의견의 불일치를 건설적으로 잘 다룬다.	1	2	3	4	5
19.나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낀다.	1	2	3	4	5
20.나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긍정적인 느낌을 잘 표현한다.	1	2	3	4	5
21.나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부정적인 느낌을 건설적으로 표현한다.	1	2	3	4	5
22.나는 다른 사람과 나의 개인적인 관심사를 나누고 싶다.	1	2	3	4	5
23.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한 표현하는 긍정적인느낌을 믿고 받아들인다.	1	2	3	4	5
24.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하여 표현하는 부정적인느낌을 나는 건설적으로 받아들인다.	1	2	3	4	5
25.나는 다른 사람과 장래에 맺고 싶은 대인관계에 대하여 이해를 하는 편이다.	1	2	3	4	5

<부록2> 오행상담프로그램 회기안 및 활동지

[제1회; 학교폭력이란??]

1) 도입

- ❶ 상담자 소개 및 내담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이유에 대한 전반적인 나
눔을 갖는다.
- ❷ 오행사상에 기초한 개인상담프로그램의 진행 계획을 설명한다. 자신과 타인
의 성격적 특성의 차이를 의식적으로 찾아보라고 알려준다.


2) 상담활동

- ❶ 학교폭력의 정의 및 종류를 알려준다.
- ❷ 학교폭력 가해자·피해자별로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적처벌과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적보호에 대한 설명을 해준다.
- ❸ 학교폭력을 중심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적 이해를 조력한다.
- ❹ 오행사상에 기초한 개인상담프로그램 소개
- ❺ 서약서쓰기

3) 마무리

- ❶ 학교폭력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바탕으로 깨닫거나 프로그램 중 느낀 감정
을 나눈다.
- ❷ 막연히 생각했던 잘못이나 피해에 대하여 법적인 내용을 이해함으로써 가해
자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불안감을 떨쳐
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폭력에 관한 처벌



"학교폭력"이라 함은 학교내외에서 학생간에 발생한 폭행, 협박, 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체, 언어, 관계, 사이버 폭력은 나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나는 _____

_____ 과 관련이 있다.

*표의 크기는 A4정도로 키워서 사용하였음.

나의 약속

1. 상담 시간을 잘 지키고 성실히 참여하겠습니다.
2. 상담을 할 때에는 경청하고 솔직하게 임하겠습니다.
3. 참석하기 어려울 때는 선생님께 미리 알리겠습니다.
4. 상담에 참석하는 동안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표의 크기는 A4정도로 키워서 사용하였음.

[제2회; 오행 이해]

1) 도입

- ❶ 오행의 유래와 오행에서 나누는 사람의 성향에 대하여 알려준다.

2) 상담활동

- ❶ 성향들 간의 차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행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자신의 성향과 타인의 성향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 ❷ 자신이 선택한 오행과 나무, 불, 흙, 쇠, 물의 이미지를 부합시켜서 자신의 성향을 규정지어본다.
- ❸ 체크리스트를 통한 성향의 보편적인 특성을 설명한다.

3) 마무리

- ❶ 자신의 성향을 오행에서 나누는 성격과 비교하여 느낀 점을 나눈다.
- ❷ 성향마다의 장점과 단점이 있음을 설명하고 자신의 성향 중 좋은 점을 부각시켜서 살 수 있도록 조력하며 회기를 마친다.

<회기2-활동지1>오행 체크리스트

❖ 다음 문항을 끝까지 잘 읽고 나의 성향이나 행동과 비슷한 것을 찾아서 체크란에 체크하고 개수를 쓰세요.

성향	내용	체크	개수
목	부정적인 걱정보다, 불확실할지라고 희망적인 계획에 대하여 말하고 싶다.		
	나는 나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고 싶다.		
	나는 되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사람이다.		
	사색을 하며 나의 미래에 대해 상상해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고통과 슬픔에 잠겨있기보다 해결책을 찾아 노력하는 편이다.		
	나는 기발한 생각들로 남들을 깜짝 놀라게 한다.		
화	타인의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잘 찾아내기 때문에 항상 만족할 수는 없다.		
	눈에 가시처럼 여겨지는 사람이 있어서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위해 나를 포기할 수 있다.		
	남들은 내가 따지길 좋아하고 욕한다고 하지만, 난 이해가 되지 않을 뿐이다.		
	나는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 싸우는 것을 겁내지 않는다.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바로잡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며,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 한다.		
토	화가 났는지 남들이 눈치 채지 못할 경우도 있지만 쉽게 풀리지 않는다.		
	나의 모든 감정을 인정해버리면 무너져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종종 든다.		
	'신이 만들어놓은 환경 속에서 시험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		
	바로 부딪치기보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나 파악한다.		
	말을 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편하다.		
	나는 내가 느끼는 감정을 완벽하게 표현하기가 힘들다.		
금	규정은 지켜져야 하기에 가까운 사람이라도 규정에 어긋나는 일을 눈 감아주어서는 안된다.		
	규칙이나 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보면 불편하다.		
	큰일을 위한 작은 희생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규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편하다.		
	모든 일에는 절차가 있고 절차를 무시하면 안 된다.		
	불합리해보이더라도 전통이라면 이유가 있을 것이다.		
수	어떤 일이든지 내가 하는 일에서 최고의 권위를 갖고 싶다.		
	다른 사람의 가능성을 잘 찾아내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 알고 있다.		
	좋은 결과를 위해 임기응변으로 타협하는 것은 능력이다.		
	내 뜻대로 사람을 조정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조직에서 나의 의견을 수렴시키기 위해 누구에게 어떻게 말해야하는 지를 쉽게 아는 편이다.		
	갈등이 생길 때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		

[제3회; 인정받고 싶은 木]

1) 도입

- ① 저번 상담회기를 통하여 이해한 자신의 성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 ② 성향을 알고 나서 혹시 변하거나 다른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확인한다.
- ③ 전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정리해 본다.

2) 상담활동

- ① 목 성향의 기본적인 성격과 특성을 알려준다.
- ② 목 성향을 성격과 느낌을 파악한다.
- ③ 자신의 주위에서 목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파악한다.
- ④ 목성향의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한다.

3) 마무리

- ① 목 성향에 대한 느낌을 나눈다.
- ② 자신의 주위사람들을 통하여 목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특성에 대해 파악하는 과제를 준다.

<회기3-활동지1>



*표의 크기는 A4정도로 키워서 사용하였음.

[제4회; 강해지고 싶은 火]

1) 도입

- ① 저번 상담회기를 통하여 이해한 목 성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 ② 성향을 알고 나서 혹시 변하거나 다른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확인한다.
- ③ 전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정리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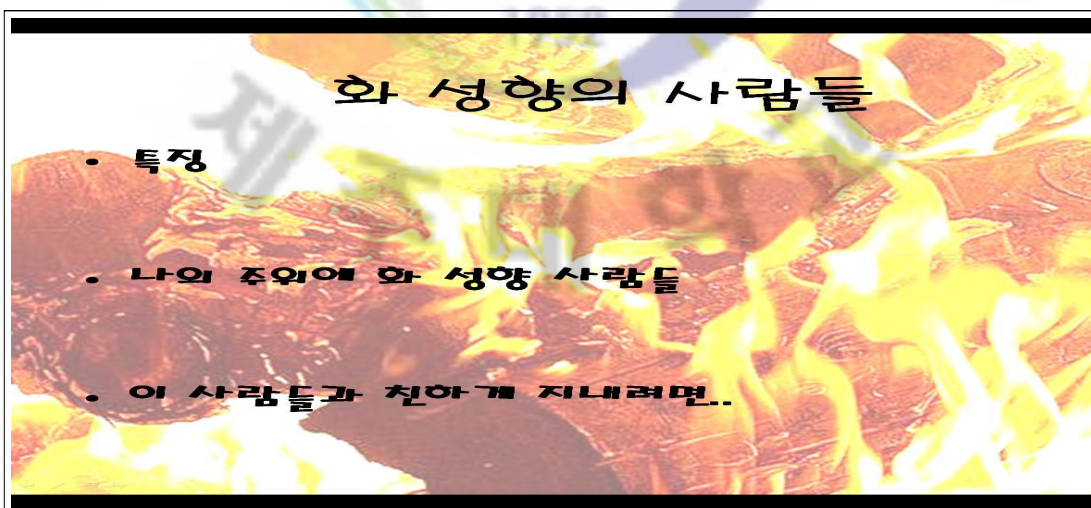
2) 상담활동

- ① 화 성향의 기본적인 성격과 특성을 알려준다.
- ② 화 성향을 성격과 느낌을 파악한다.
- ③ 자신의 주위에서 화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파악한다.
- ④ 화 성향의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한다.

3) 마무리

- ① 화 성향에 대한 느낌을 나눈다.
- ② 자신의 주위사람들을 통하여 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특성에 대해 파악하는 과제를 준다.

<회기4-활동지1>



*표의 크기는 A4정도로 키워서 사용하였음.

[제5회; 진실을 알고 싶은 토]

1) 도입

- ① 저번 상담회기를 통하여 이해한 화 성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 ② 성향을 알고 나서 혹시 변하거나 다른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확인한다.
- ③ 전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정리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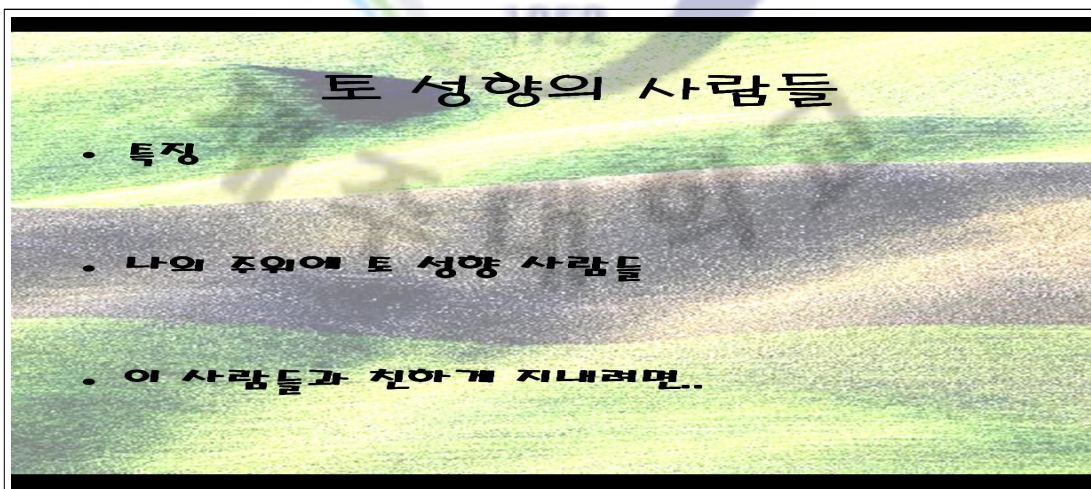
2) 상담활동

- ① 토 성향의 기본적인 성격과 특성을 알려준다.
- ② 토 성향을 성격과 느낌을 파악한다.
- ③ 자신의 주위에서 토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파악한다.
- ④ 토 성향의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한다.

3) 마무리

- ① 토 성향에 대한 느낌을 나눈다.
- ② 자신의 주위사람들을 통하여 토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특성에 대해 파악하는 과제를 준다.

<회기5-활동지1>



*표의 크기는 A4정도로 키워서 사용하였음.

[제6회; 규칙을 지키고 싶은 金]

1) 도입

- ① 저번 상담회기를 통하여 이해한 토 성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 ② 성향을 알고 나서 혹시 변하거나 다른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확인한다.
- ③ 전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정리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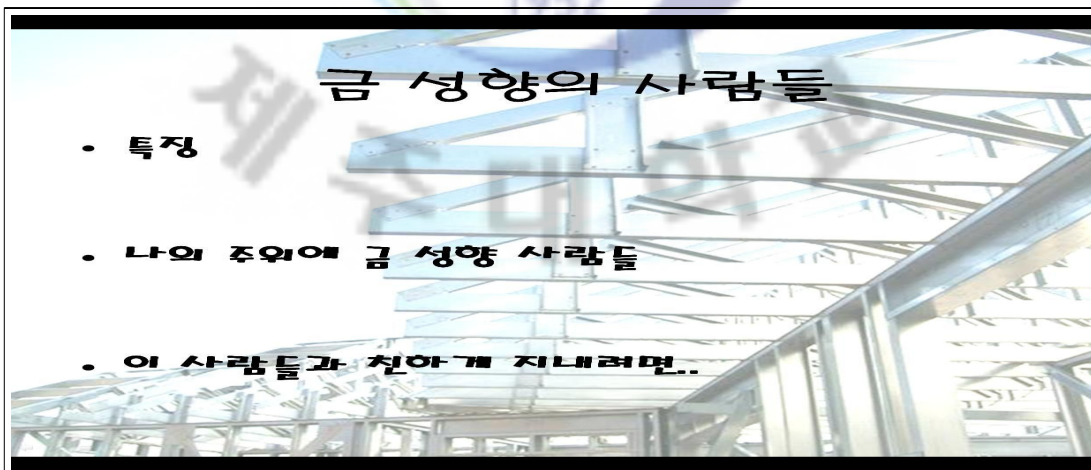
2) 상담활동

- ① 금 성향의 기본적인 성격과 특성을 알려준다.
- ② 금 성향을 성격과 느낌을 파악한다.
- ③ 자신의 주위에서 토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파악한다.
- ④ 금 성향의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한다.

3) 마무리

- ① 금 성향에 대한 느낌을 나눈다.
- ② 자신의 주위사람들을 통하여 금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특성에 대해 파악하는 과제를 준다.

<회기6-활동지1>



*표의 크기는 A4정도로 키워서 사용하였음.

[제7회; 조정하고 싶은 水]

1) 도입

- ① 저번 상담회기를 통하여 이해한 금 성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 ② 성향을 알고 나서 혹시 변하거나 다른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확인한다.
- ③ 전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정리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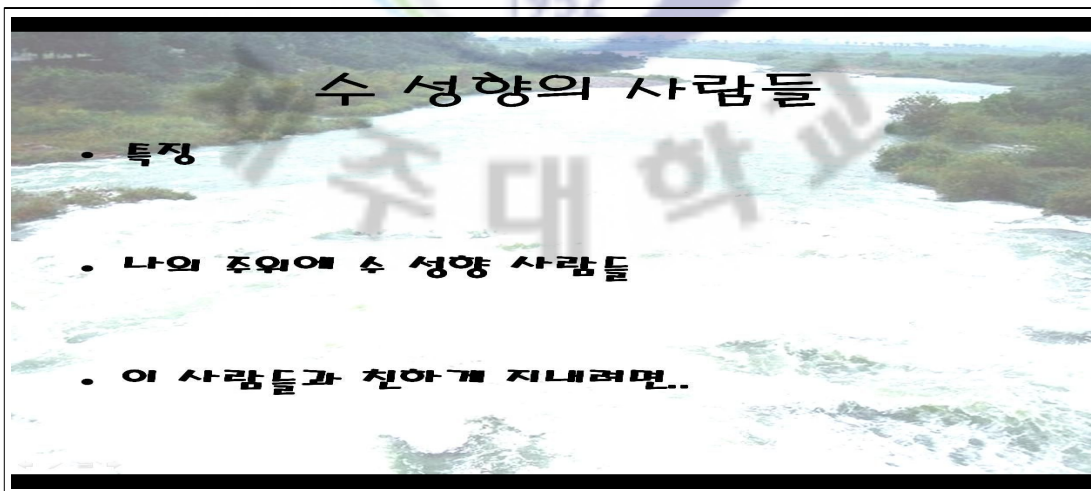
2) 상담활동

- ① 수 성향의 기본적인 성격과 특성을 알려준다.
- ② 수 성향을 성격과 느낌을 파악한다.
- ③ 자신의 주위에서 수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파악한다.
- ④ 수 성향의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한다.

3) 마무리

- ① 수 성향에 대한 느낌을 나눈다.
- ② 자신의 주위사람들을 통하여 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특성에 대해 파악하는 과제를 준다.

<회기7-활동지1>



*표의 크기는 A4정도로 키워서 사용하였음.

[제8회; 오행의 상생]

1) 도입

- ❶ 저번 상담회기를 통하여 이해한 수 성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 ❷ 성향을 알고 나서 혹시 변하거나 다른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확인한다.
- ❸ 전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정리해 본다.

2) 상담활동

- ❶ 각 성향이 상생의 원리에 의하여 순환 되는 내용과 특성을 알려준다.
- ❷ 순환의 원리에 의해 상생되는 형상을 실생활에서 관계적인 면을 부각하여 적용해본다.
- ❸ 상생의 원리에 의하여 사람들 간 영향관계를 파악한다.

3) 마무리

- ❶ 상생의 원리에 대해 나눈다.
- ❷ 자신의 성향의 어떤 부분이 남에게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자신은 어떤 부분을 타인에게 원하는지를 나눈다.

<회기8-활동지1>

오행의 상생

목의 창의력은 화의 열정에 밑거름이 되고, 화의 열정은 토의 가슴 속에서 깊은 열망이 됩니다. 토처럼 열망을 간직한 사람은 금과 같이 욕망을 절제할 수 있고, 금의 규칙이 익숙해졌을 때 수처럼 융통성을 보낼 수 있고, 수의 자유분방함은 목의 창의력에 녹아 듭니다.

나는 _____ 한 점이 있는데 이러한 이유에서 _____ 에게 _____ 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

*표의 크기는 A4정도로 키워서 사용하였음.

[제9회; 오행의 상극]

1) 도입

- ❶ 저번 상담회기를 통하여 이해한 오행의 상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 ❷ 상생의 법칙을 알고 나서 혹시 변화거나 다른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확인한다.
- ❸ 전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정리해 본다.

2) 상담활동

- ❶ 각 성향이 상극의 원리에 의하여 순환 되는 내용과 특성을 알려준다.
- ❷ 순환의 원리에 의해 상극되는 형상을 실생활에서 관계적인 면을 부각하여 적용해본다.
- ❸ 상극의 원리에 의하여 사람들 간 영향관계를 파악한다. ❷ 자신의 성향의 어떤 부분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지 그리고 자신은 어떤 부분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입게 되는지를 나눈다.

3) 마무리

- ❶ 상극 원리에 대해 나눈다.

<회기9-활동지1>

오 행 의 상 극

금의 신중함은 목의 도전을 망설이게 하고,
목의 도전은 수가 완고함을 부추뜨립니다.
수의 완고함은 화의 융통성을 억제시키고,
화의 융통성은 토의 완고함을 가리키는 마음까지도 풀어버립니다.
토의 완고함은 목의 도전에 앞메이론을 거부합니다.

나는 _____ 한 점이 있는데
 이런 이유에서 _____ 에게

 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

*표의 크기는 A4정도로 키워서 사용하였음.

[제10회; 오행을 통해 실생활에 적용하기]

1) 도입

- ❶ 저번 상담회기를 통하여 이해한 오행의 상극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 ❷ 상극의 법칙을 알고 나서 혹시 변하거나 다른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확인한다.
- ❸ 전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정리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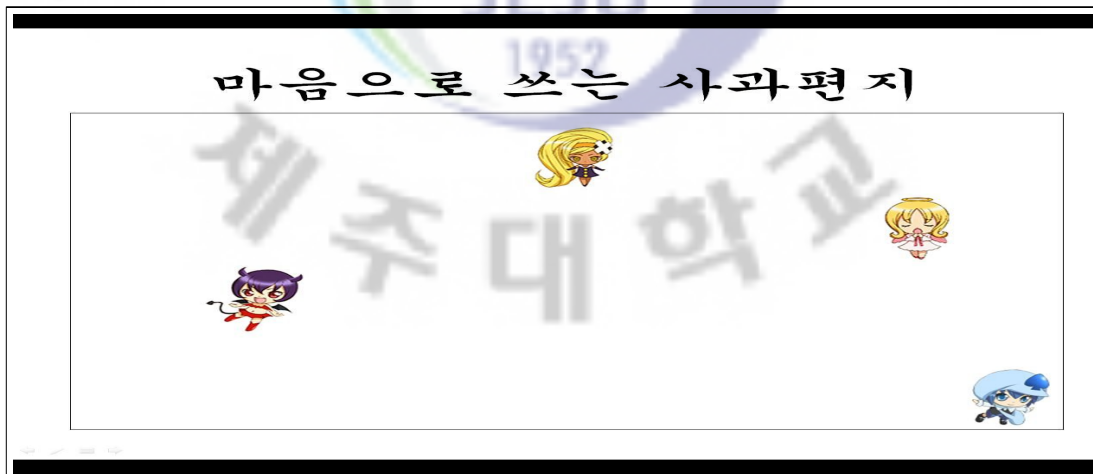
2) 상담활동

- ❶ 오행 원리에 의하여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다.
- ❷ 자신과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다.
- ❸ 자신의 성향의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다.

3) 마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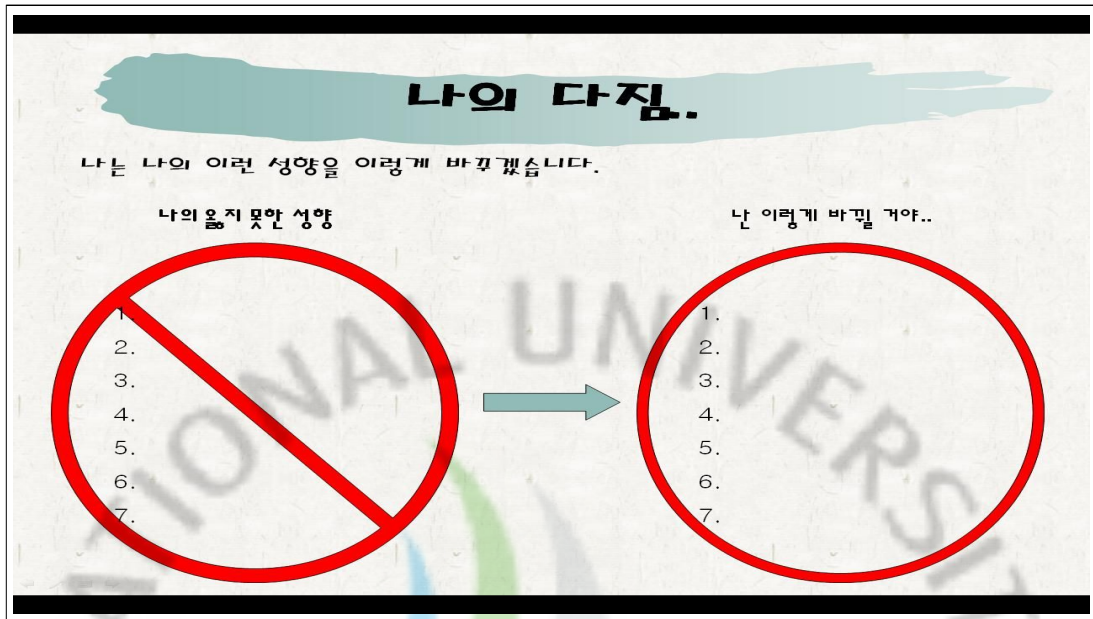
- ❶ 오행에 전체적인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
- ❷ 지금까지 배운 오행의 원리를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다짐한다.

<회기10-활동지1>



* 본 활동지는 가해자 학생들에게 사용하였으며, 표의 크기는 A4정도로 키워서 사용하였음.

<회기10-활동지2>



*표의 크기는 A4정도로 키워서 사용하였음.

